

# 이화동창

총동창회장 인터뷰 / 2017년도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 / 이화 종합사회복지관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04

06

10

18

# 이화동창

2017년 봄 제146호



## 표지화

오용길(모교 동양화과 명예교수)  
이화교정  
(한지에 수묵담채, 121×182cm, 2011)

## 편집위원

김영주(교육 71, 총동창회장)  
정준순(약학 72, 부회장)  
김광옥(식영 75, 부회장)  
송은미(유교 85, 총무)  
이영희(사학 88, 홍보부장)  
김미령(커미부 69)  
윤혜숙(커미부 86)  
전세영(사학 94)  
김민희(국문 99)

02 총동창회장 인터뷰	김영주 총동창회장
04 2017년도 정기총회	2017년도 사업계획과 사업 보고 및 임원 개선
06 2017년도 신입 동창 환영회	2017년도 졸업생들, 신입 동창으로 입회
08 2017년도 신입 동창 환영사·답사	이정화 인문대학 동창회장, 남가경 신입 동창
09 2017년도 사업계획안	
10 만나고 싶었습니다	쉼박물관 관장 박기옥 동창
14 축하합니다	이배용 동창 외 19인
18 자랑스러운 이화의 얼굴	한동대 교수로 제2의 삶 도전하는 이지선 동창
22 총동창회 소식	2016년 결산안 승인 외
24 선교부 소식	2017년 총동창회 선교부 겨울 수련회
25 이화발레앙상을 선교 공연 후기	성령 충만 에티오피아 선교 공연
26 선교지에서 온 편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8 나의 스승 나의 제자	최영희 간호대학 명예교수와 제자들
34 이화의 이곳저곳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38 모교사용설명서	모교의 체육시설 이용법
40 모교 소식	2017년 이화여자대학교 신년인사 외
44 대학(원) 소식	사회과학대학 외
47 과(학부) 소식	영어영문학과 외
53 지회 소식	남가주 지회 외
62 동창 근황	김태련 동창 외
71 동창이 펴낸 새 책	『수다떨다 글쓰다』 외 9권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 2017년 봄 146호

발행 2017년 4월 10일 발행 | 발행인 김영주 |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 전화 02-3277-3386~7 | E-mail ewhaalum@ewha.ac.kr  
홈페이지 <http://www.ewhaalum.or.kr> | 편집 문화정원 | 인쇄 제이오 | 값 1,000원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17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 “전환점에 선 모교와 함께 새로운 이화의 역사를 열어가겠습니다”



김영주(교육 71, 총동창회장)

지난 3월 11일(토) 모교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열린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제17대 총동창회장에 연임된 김영주(교육 71) 동창은 이화여고를 졸업하고, 모교 교육학과에 입학, 졸업(1971년)한 뒤 총동창회 서기(4년), 총동창회 총무(4년), 사범대학 동창회장(7년)을 역임하며 다년간 총동창회에서 헌신하였다. 김 동창은 “전환점에 선 모교와 함께 새로운 이화의 역사를 열어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편집자 주

### 총동창회장에 연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축하의 인사를 받으니 갑자기 가슴에 무거운 짐이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숙제가 제 앞에 놓여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앞섭니다. 지난해 이화는 창립 130주년이라는 축복된 시간을 가졌지만, 한편으로는 창립 아래 가장 힘든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동창들이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화가 고통을 딛고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고 기도드린 동창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이 이화에 내린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17대 총동창회장에 연임된 지금도 이

화를 위한 저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화의 구성원으로서 총동창회 역시 지난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21만 동창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지요.**

고통의 시간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인물은 「욥기」의 주인공 욥입니다. 욥은 끊임없는 시련과 고통을 당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고통의 나락으로 추락할 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도,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다고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경청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화의 시련에 담긴 하나님의 담대한 역사

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욥기」 8장 7절 말씀에서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화가 고통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만하거나 서둘러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고통만을 되새기며 같은 자리에 머물러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화가 지난날을 반성하며, 이화가 21세기에 담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담담하게 이행하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라 믿습니다.

전환점에 선 모교의 새 출발을 지지하며 아낌없이 응원하는 것이 총동창회가 그리고 동창 개개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화의 고귀한 전통과 모교를 향한 수많은 동창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 이화의 전통을 지키면서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화동창들은 그동안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고등교육기관의 졸업생으로서 빛나는 자부심을 가졌으며, 각 분야에서 최고의 여성 타이틀을 주는 선후배들과 함께 그 자체로 빛나는 이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이화는 많은 시련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고통과 좌절을 경험한 동창도 있었으며, 구성원 간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요.

총동창회장으로서 저는 우선 100년이 넘게 지켜져 내려오고 있는 총동창회의 나눔과 봉사, 진선미의 오랜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세대 간 다름을 존중하며, 화합하는 리더십으로 모두를 포용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화의 이름으로 하나되어 새로운 이화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데에 힘을 보

태고 싶습니다.

### 앞으로 2년간 총동창회가 역점을 둘 분야는 무엇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우선, 모교 발전에 협조하는 총동창회가 될 것입니다. 모교와 소통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모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둘째, 보다 많은 동창들이 총동창회와 선후배 간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 총동창회가 단독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도 동창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였으며, 이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창립 130주년 기념식에서 총동창회는 ‘빛나는 이화인’상을 신설, 각 분야에서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 5명·연극인 복지재단 이사장 박정자(커미부 2004 명예졸)·IBK 저축은행 대표이사 김성미(영문 82)·안소영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안소영(약학 83)·제20대 국회의원 송희경(컴공 87)·아트미아 예술재단 대표 진현미(중문 92)–동창에게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는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 및 전문직 동창들을 격려하고, 선후배 간 정보교환과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일환이었습니다.

총동창회는 선배 동창들의 연륜과 경험을 경청하고, 젊은 후배들의 활력과 새로움을 포용하여 이화라는 이름으로 멋진 하모니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화는 또 다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총동창회는 모교와 함께 새로운 이화의 역사를 열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모든 동창들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인터뷰 · 이영희(사학 88, 홍보부장)



#### 2017년도 정기총회

## 총동창회 회장에 김영주 동창 연임 2017년 사업계획안 승인 및 총동창회의 사업 보고

### 김영주 총동창회장 “전환점에 선 모교 응원할 것”

3월 11일(토) 오후 2시 총동창회는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정의숙 이화학당 전 이사장, 총동창회의 윤순희(교육 65)·김순영(약학 62)·조종남(의학 75) 고문, 김영주(교육 71) 총동창회장 및 25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송은미(유교 85) 총무의 사회로 시작된 정기총회는 김영주 총동창회장의 개회선언과 개회사, 전 회의록 낭독, 2016 회계연도 감사·사업 보고 및 결산안 승인, 2017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임원 개선, 신임회장 인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창립 130주년을 맞은 지난해 이화는 축복의 시간도 가졌지만 큰 시련을 겪기도 했다”며 “지난날을 반성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화에 있으셨던 것으로 믿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화의 고귀한 전통



1. 정의숙 이화학당 전 이사장 2. 전형위원장 김순영 고문 3. 김영주 총동창회장

과 모교를 향한 수많은 동창들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는 결집되어 있으니 우리 모두 이화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자”고 말하여 동창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안영호(중문 85)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여 통과되었고, 남상택(물리 74) 감사의 2016 회계연도 감사 보고가 있었다. 남상택 감사는 “동창회 살림을 규모 있게 한 것을 확인했지만 신입 동창 입회비 실적이 저조해서 아쉽다”며 “신입 동창들의 입회비 납부는 동창회 발전에 밀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송은미 총무가 2016 회계연도 사업보고와 2017 회계연도 사업계획을 발표했고, 이승연(컴공 89) 회계가 2016 회계연도 결산안과 2017 회계연도 예산안 보고를 하였다. 각 항목마다 참석 동창들의 동의와 재정 속에 안건이 승인되었다.

### 전형위원장의 새 회장단 발표에 동창들 박수로 환영

이날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임원 개선이었다. 김순영 전형위원장은 총동창회 회칙

4. 전형위원 조미숙·정용희·홍승진 동창, 윤순희 고문(왼쪽부터) 5. 조종남 고문



3장 7조 1항에 준해 전형위원회 5인을 김순영·윤순희·홍승진(문정 65)·정용희(약학 75)·조미숙(식영 83) 동창으로 선임하였고, 수차례 회의 끝에 2년 임기 동안 총동창회를 위해 수고해줄 총동창회장으로 17대 김영주 총동창회장의 연임을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이어 동의와 재정을 거쳐 모든 참석자들이 ‘가’로써 찬성을 표함에 따라 새 회장 인준을 선포하였다.

연임된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문을 연 뒤 “전환점에 선 모교에 힘이 되는 총동창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참석한 동창들은 큰 박수로 격려하며 총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하였다.

### 2017년도 신입 동창 환영회

## 2017년도 졸업생들, 신입 동창으로 입회 재학생 24명에게 총동창회 장학금 수여

정기총회에 앞서 2017년도 졸업생 약 3,500명이 총동창회에 신입 동창으로 입회하게 된 것을 축하하는 신입 동창 환영회가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열렸다. 허현미(체육 89) 회우부장의 사회로 시작한 환영식에서 2016년과 8월과 2017년도 2월에 졸업한 신입 동창들은 선배 동창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한숙영(제약 79) 문화부장은 “이화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았는지 회개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화가 환골탈태하여 순전히,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총동창회가 앞장서서 돋자”고 뜨거운 기도를 올렸다.

이어 이정화(독문 74) 인문대 동창회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이정화 동창은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는 고사를 인용하며, “내 것에 대한 당당함이 있다면 두려울 게 없다”고 말한 뒤, “앞으로 울타리가 되어줄 이화여자대학



대회의실을 가득 메운 동창들

교 동창회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도 만날 수 있으니 어디서든 이대 출신답게 당당하고 씩씩하게 살라”고 신입 동창들을 격려하였다.

남가경(수교 17) 신입 동창은 답사를 통해 “이화에서 여러 교수님, 동기, 선후배들을 만나고 또 이화의 수준 높은 수업을 들으며,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었고, 책임지는 방법을 배웠다”며, “학우들과 서로 다른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준 이화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신입 동창들에게 총동창회에서 마련한 기념품을 전달하고, 서은설(대학원 관현악과 재학) 재학생 외 23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동창회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승아(성악 98) 동창의 축가(반주 김하얀, 피아노 01)로 〈꽃구름 속에〉, 〈Non Ti Scordar Di Me(나를 잊지 말아요)〉를 들으며 선후배 간의 우정과 사랑, 격려를 나누는 신입 동창 환영회를 마쳤다.

글·이영희(사학 88, 홍보부장)

1. 신입 동창 대표에게 김영주 회장이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2. 장학생 대표 서은설 동창에게 총동창회 장학금을 수여했다
3. 총동창회 장학금을 수여받은 재학생들
4. 신승아 동창의 축가



2017년도 신입 동창 환영사

## 내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이정화(독문 74, 인문대학 동창회장)



이제 여러분은 이화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꿈을 안고 보다 더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거운 짐은 모교에 맡기고 여러분은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길을 떠났으면 합니다.

131년 이화의 역사에는 이화를 사랑하는 여러 선배님들의 열정과 고통 그리고 봉사와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련을 감사히, 겸허히 받아들여 나눔과 섬김, 배려의 이화 정신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맡아 하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책임 있게 다해 주십시오. 그 모습이 바로 이대 출신의 모습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당당함이 있다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든 주인 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그 자리가 진리의 자리입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는 고사성어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삶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나라 안팎과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늘 깨어 있는 마음으로 자기를 살펴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할 일은 도처에 있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줄 이대 동창회는 국내에서도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긴 날들을 살아갈 여러분에게 동창회는 큰 의지처이자 힘이 될 것입니다.

2017년도 신입 동창 답사

## 이화에서 배운 주체적 삶

남가경(수교 17)



갓 성인이 되어 처음으로 이화에 발을 내디뎠을 때, 많은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여러 교수님, 동기, 선배들을 만나고 또 이화의 수준 높은 수업을 들으며,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계획·관리할 수 있었고, 책임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학우들과 서로 다른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 저는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한국 여성학의 시작이며 산실인 이화에 진학하여 올바른 여성학을 배운 것은 저에게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에서 생활하면서 존경하는 선배님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일들이 많습니다. 장학금 지원 혜택, 저의 미래의 꿈을 갖게 된 멘토링 등을 통해 선배님들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심어린 응원과 현실적인 조언, 격려를 받으며 사회에서의 높은 뛴박질이 가능하게끔 도와주셨습니다. 선배님들의 훌륭한 발자취를 바라보며 같은 이화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고, 저희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화의 품을 벗어나는 것이 어렵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나가, 훌륭한 선배님들의 뒤를 이어 이화의 진선미가 친란하게 빛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선배님들의 큰 사랑을 저의 후배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 2017년도 사업계획안

2017. 3. 1 – 2018. 2. 28



1.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3월 11일)
2. 각 과(학부), 대학(원) 동창회장 및 국내 지회장 초청 간담회(4월 20일)
3. 제6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5월 13일) \*33p 참조
4. 이화 창립 131주년 기념 감사찬양제(5월 16일)
5. 동창의 날 행사(5월 31일)  
총장 초청 오찬  
기념식 – ‘빛나는 이화인’ 상 시상 \*21p 참조
  - 졸업 50주년(1967년 졸업) 동창 재상봉 행사
  - 졸업 30주년(1987년 졸업) 동창 재상봉 행사
- ‘올해의 이화인’ 추대
- 합창제  
‘올해의 이화인’을 위한 다과회
6. 해외 지회 동창 오찬 간담회(6월 1일)
7. 총동창회 기금 마련을 위한 대バ자(9월 21일)
8. 후원이사 간담회(10월)
9. 제16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10월 26일~10월 29일, 미국 뉴욕)
10. 이화인의 밤 개최(11월 27일)
11. 제12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시상(11월 27일)
12. 이화가족 성탄예배(12월 7일)
13. 동창회보 146호~149호 발간(3, 6, 9, 12월)
14. 국내 지회 활성화를 위한 지회 순방
15. 평생회비, 연회비 납부회원 배가 운동(연중)
16. 후원이사 증원(연중)
17. 모교발전기금 모금(연중)
18. 지원 사업(연중) 1) ‘이화인이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행사 찬조
  - 2) 나눔가게
  - 3) 학생군사교육단 입단식 후원
19. 기념품 제작 및 판매(연중)
20. 황화방 운영(연중)
21. 기타

만나고 싶었습니다 / 숨박물관 관장 박기옥 동창

## ‘얼’이 살아 있는 장례문화 만들었으면



서울 종로구 홍지동 상명대학교 옆, 차 한 대 겪 우 지나는 가파르고 좁은 단독주택가 입구에 작은 간판이 보인다. ‘쉼박물관’. 우리나라 최초로 ‘죽음’ 그리고 ‘장례 문화’를 테마로 한 박물관으로 올해로 개관 10년째를 맞는다. 주차장 입구에 들어서면 아동문학가 권영상의 시 <새>가 반긴다.

버릴 것은 버리면서 가볍게 하늘을 나는가 보다  
가벼운 것일지라도 새들은 가끔씩 깃털을 버리  
는가 보다

이 독특한 박물관의 주인은 모교 사학과 1회 출신인 박기옥(사학 55입) 동창이다. 인터뷰가 약속 된 날, 마침 국회방송 <황수경이 만난 사람> 보조 촬영이 있었다(방송은 3월 중순부터 3회에 걸쳐 방영되었다). 박 동창은 “이화 후배님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반갑게 맞아 주었다. 82세라는 나 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에너지가 넘쳐 보였다.

마당 넓은 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돼

있다. 1층엔 대형 상여와 혼백을 운구하는 요여, 상여 장식, 제례 때 쓰는 제기, 죽음을 알리는 부고장, 각종 고가구들이 있고, 2층에는 지상과 천상을 연결한다는 새, 까마귀, 상상의 동물인 용, 봉황, 세계적인 팝 아트 작가 제프 쿤스 작품, 독일 간호사이자 세계적인 작가 노은의 작품, 각국의 인형들까지 다양한 근현대 작품으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지하 1층은 젊은이들을 위한 전시실로 운영한다. 이날은 기획전 ‘소반전’이 열리고 있었다. 창문 곳곳에는 박 동창이 ‘한복’을 테마로 지은 ‘보’ 작품이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다. 그는 ‘보’ 작가이기도 하다.

쉼박물관 탄생의 숨은 주역은 박 동창의 남편이다. 박 동창은 남편의 죽음을 대하면서 죽음에 대한 철학이 달라졌다고 한다. 남편 1주기 기일을 기해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쉬고 있구나!’ 여겨 이름을 쉼박물관으로 지었다.

쉼박물관에 다녀간 문화유산국민신탁 김종규

이사장은 『장자』 「내편(內篇)」의 이런 구절을 보내 왔다. ‘자연은 우리에게 형체를 주었고, 삶은 우리에게 수고로움을 주었으며, 늙음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었고, 죽음은 우리에게 쉼을 주었다. 삶의 아름다움이 죽음 또한 아름답다 해도 되리라.’

“김 이사장은 쉼박물관을 오늘날의 장자 철학이 구현된 곳이라고 하더군요. 저와 비슷한 연배의 서울시 복지관 회원들이 이곳을 다녀간 후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죽음이란 두렵고 무서운 것으로만 인식했는데, 죽음과 함께 사는 내 모습을 보고 생각이 달라졌다고 해요.”

우리 장례문화는 외국인들이 더 좋아한다고 한다. ‘꽃밭에 온 듯 화려하고 아름답다’고 방명록에 적은 외국인도 있었다. 박 동창은 우리 전통 장례 문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죽음은 슬프지만 어쩔 수 없이 보낼 바에야 장엄하게, 화려하게, 즐

겁게, 기쁘게 보낸 흔적들이 역력합니다. 해학적이고 익살맞은 목조형물을 보면 알 수 있지요.”

### 세 딸 모두 모교 출신

쉼박물관은 박기옥 동창이 40년간 살던 집을 개조해 꾸민 공간이다. 지금도 그는 2층 한 공간에서 산다. 그가 처음부터 쉼박물관을 염두에 두고 전시물을 모은 것은 아니다. 그저 ‘오래된 우리 것’에 마음을 빼앗긴 그의 수집벽은 20대부터 시작됐다. 첫 컬렉션은 주방을 개조한 전시실 벽면에 있는 꼭두소년과 소녀들. 알록달록 꼭두인형들이 꼭 자신의 3녀 1남 자녀들을 닮은 것 같아 눈길이 갔다고 한다.

세 딸은 모두 모교 출신이다. 첫째 남희정 동창은 섬유예술과를, 둘째 남수정 동창은 생활미술과



망자를 슬프지만 장엄하게, 화려하게, 즐겁게 보낸 우리 전통 장례문화를 보존하고 알리는 박기옥 동창



모교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 때 배꽃무늬 흰색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도 소중한 추억이다

를, 셋째 남은정 동창은 조소과를 졸업했으며, 셋다 모교 대학원을 나왔다. 남은정 동창의 딸도 모교 영문과 2학년에 재학 중이다.

박 동창은 준비해 둔 60년 전 빛바랜 사진을 보여 주었다. 1955년 3월 5일 입학 전날 눈 덮인 교정, 기숙사 미관 앞에서 고향 선후배와 찍은 사진, 이화 60주년 행사 때 입은



눈 덮인 교정에서, 기숙사 앞에서 고향 선후배와 찍은 사진 등 모교의 추억을 곱게 간직하고 있는 박기옥 동창

배꽃무늬 흰색 한복 사진 등이었다.

“사학과 1회로 입학했지만 졸업은 하지 못했어요. 2학년 서양사 시간에 영어를 못해 힘들어하던 차에 남편이 결혼을 서두르면서 학업을 중단했지요. 지금은 고인이 된 1회 수석 입학생 민경임 등이 나를 반겨주어 1회 출신 대열에 낼 수 있었어요. 늘 감사하게 여깁니다. 공부 시기를 놓친 것이 후회된답니다.”

### 남편의 기일 즈음엔 공연을

박물관 설립의 원동력인 박 동창의 남편(남방희 전 한려개발 그룹 회장)은 ‘덕불고필유린(德不孤必有隣, 덕을 베풀면 외롭지 않다)’을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한다. 20여 년간 남몰래 고향 후학들을 도와준 선행은 남편의 사후에 뒤늦게 밝혀졌다. 후배들은 남 회장의 묘소에 이런 비문을 남겼다.

‘당신은 우리들이 그렇게도 어려운 학창 시절에 꿈을 열게 해주셨고, 바르게 살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권의 책과 한 그릇 밥이 그리도 어려웠던 시절에 몰래 학비를 도와주시고,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던 당신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자상하기 그지없었던 남편의 빈자리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컸다. 거의 매일 경기도 분당에 있는 남편



40년간 살던 집을 개조해 꾸민 쉼박물관 전경

의 산소를 찾아가 눈물로 시간을 보냈다. 그는 “지금도 다울지 못해 가슴으로 호느낌이 치고 올라온다”고 했다.

쉼박물관에서는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매년 10월 남편의 기일 즈음하여 테마가 있는 퍼포먼스나 공연도 연다. ‘빛의 작가’ 제임스 튜렐의 대표작 ‘스카이스페이스’ 설치미술도 했으며, 패션디자이너 임선옥 씨가 ‘삶과 죽음’을 테마로 한 ‘블랙 앤 화이트’ 패션쇼를 열기도 했다. 이 기획에는 파리에서 활동 중인 셋째 딸 남은정 동창의 도움이 컸다. 가족과 지인들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형식적인 제사를 올리는 대신, 남 회장을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삶과 죽음을 무겁지 않게 즐긴다.

“박물관 관장은 박물관 유물을 지키는 머슴이 아닙니다. 전시물을 보여 주는 가이드도 아니지요. 울림을 주는 박물관 관장이 되고 싶습니다.”

박기옥 동창은 스스로 ‘애국자’를 자처한다. ‘우리 것’에 대한 애착은 비단 조형물 수집을 넘어선

다. 쉼박물관 입구에는 1년 365일 태극기가 게양돼 있고, 박물관 곳곳에는 태극 문양을 살렸다. 장례식에서 일본 황실을 상징하는 ‘국화’ 대신 ‘무궁화’를 사용하자고 주장하고, 국장(國葬)만큼은 우리 얼이 살아 있는 전통장례로 하자고 줄기차게 외치고 있다. 국화꽃 수백 송이로 장식된 국적 불명의 장례식 대신, 화려하고 스토리가 살아 있는 장례를 치르자는 것이다. 박 동창은 10년 전부터 꾸준히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는다면 답답해했다.

그는 아직 할 일이 많다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여생 동안 죽음을 터부시하는 인식을 바꾸고 우리 얼이 살아 있는 장례문화 부흥 운동에 혼신을 다하고 싶습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는 문화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분들이 쉼박물관에 오셔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셨으면 합니다.”

글·김민희(국문 99, 이화동창 편집위원)

# 축하합니다



졸업 연도 순서로 게재



## 이배용(사학 69) 동창 **영산대 석좌교수 위촉**

대학교육협의회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지낸 이배용 전 모교 총장이 영산대 석좌교수로 위촉되었다. 영산대는 동양문화연구원, 흥익행정연구원, K-디자인연구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전 총장은 이를 연구원을 총괄하는 한국학학술원 원장을 맡게 되었다.



## 정우영(생명 75) 동창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사단법인 사람과평화 이사 정우영 동창이 2016년 12월 29일(목) 수원준법지원센터에서 열린 '법무부 유공자 포상 시상식'에서 지난 18년 동안 민간단체 소속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 안전프로그램 운영과 가해자 상담 및 수강명령 교육 등 법무부와 협력한 범죄예방 활동 실적을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 조종남(의학 75) 동창 **서울 YWCA 회장 연임**

총동창회 고문인 조종남 동창이 1월 24일(화) 개최된 서울 YWCA 제95회 정기총회와 임시 이사회에서 회장으로 재선출되었다. 임기는 2년이다.



## 김은실(영문 80) 동창 **제4대 아시아여성학회장 선출**

모교 여성학과 교수 김은실 동창이 2016년 12월 1일(목)부터 3일(토)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4차 아시아여성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총회(4th Congress of Asi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에서 4대 아시아여성학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19년까지 3년이다. 이번 차기회장 선출로 모교 아시아여성학센터에서 사무국을 운영하게 되었다. 아시아여성학회는 현재 43개국 699명의 개인회원과 26개 기관회원이 함께하고 있다.



### 이화익(영문 80) 동창

#### 한국화랑협회장 당선

2월 8일(수)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8대 한국화랑협회장 선거에서 이화익 갤러리 대표 이화익 동창이 당선되었다. 임기는 2년이다. 이 동창은 “한국국제아트페어(KIAF)를 좀더 발전시키고 세계화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진(화학 81) 동창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수상

모교 자연과학대학 화학·나노과학전공 교수 김성진 동창이 2016년 12월 31일(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김 동창은 화학·나노소재 분야에서 280여 편의 국제 SCI 학술논문과 18편의 특허를 발표하는 등 기초연구의 뛰어난 우수성과 기초연구 진흥 및 기초과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정정숙(영문 81) 동창

#### 전주문화재단 신임 대표이사 선임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정정숙 동창이 선임되었다. 취임식은 2월 16일(목)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정 동창은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상근 객원 연구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 연구위원으로 활동한 문화예술정책 전문가다.



### 이계영(교육 82) 동창

####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 발령

이계영 동창이 2월 6일(월)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전보 발령됐다. 이 동창은 교육과학기술연수원장, 광주광역시 부교육감 및 학술원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 홍정순(문정 83) 동창

#### 입법부 최초 1급 여성공무원 발령

홍정순 동창이 1월 23일(월) 국회 인사 발령에 따라 국회도서관 관리관으로 승진하며 1948년 국회 개원 이래 최초의 입법부 여성 1급 공무원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홍 동창은 1983년 국회도서관 7급 사서직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열람봉사과장과 의회정보심의관, 정보봉사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였다.



### 이지희(의학 84) 동창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 수상

이지희 동창이 기초연구 진흥과 기초과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12월 31일(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 동창은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정한 조직손상방어연구센터 소장을 역임하고 있

으며, 이화융합의학연구원 조직손상 및 염증질환 융합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이 동창은 기초 의·치·한의·약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기초 및 중개의학 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한혜영(컴공 85) 동창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정보본부장 발령**

한혜영 동창이 1월 4일(수)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학술정보 유통체계 및 고등교육 정보 활성화를 총괄하는 학술정보본부장으로 임명됐다. 한 동창은 2000년 모교에서 문헌정보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책통계부장, 학술정보부장 등 주요 직책을 역임한 바 있다.



### 이향숙(수학 86) 동창

####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수상**

모교 수학전공 교수 이향숙 동창이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2016년 12월 27일(화) 시상식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과 포상금 1,000만 원을 받았다. 70년 역사의 대한수학회 최초 여성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는 이 동창은 여성 과학기술인 권익 증진과 역량 향상에 앞장선 것을 비롯해 청소년과 일반인에게 수학 및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 조정열(사회 89) 동창

#### **쏘카 신임 대표이사 선임**

조정열 동창이 2월 1일(수) 쏘카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조 동창은 글로벌제약회사 MSD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략 마케팅 상무를 지냈으며, 한국 피자헛 마케팅 전무, 미술품 경매회사 K옥션 대표를 거쳐 갤러리현대 대표로 활동하였다.



### 권민희(섬예 91) 동창

#### **연성대 총장 취임**

권민희 동창이 2월 24일(금) 연성대 제4대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임기는 4년이다. 권 동창은 1997년 연성대로 부임하여, 대외협력부단장, 기획부실장 등을 역임했다.



### 이소영(정외 92) 동창

#### **현대캐피탈 리스크관리실장 이사 승진**

2월 6일(월) 단행된 현대자동차그룹 정기인사에서 현대캐피탈 리스크관리실장 이사대우 이소영 동창이 이사로 승진하였다.



김윤경(조소 93) 동창

### 제13회 김종영조각상 수상

조각가 김윤경 동창이 2016년 12월 12일(월) 서울 평창동 김종영미술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제13회 김종영조각상을 수상했다. 1990년부터 격년제로 수여하는 김종영조각상은 만 45세 이하 조각가를 대상으로 한다.



박소정(화학 94) 동창

### 2017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자상 수상

모교 화학·나노과학전공 교수 박소정 동창이 여성신문이 선정하는 '2017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자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연성소재 미세로봇을 구동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박 동창은 그간의 연구 성과와 영향력을 인정받아 과학 분야를 대표하는 젊은 여성 리더로 선정되었다.



신수진(간호 96) 동창

### 보건복지부장관상 표창

신수진 동창이 2016년 12월 30일(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창립 24주년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신 동창은 간호사 국가시험 출제위원과 요양보호사 시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문항개발 워크숍 진행, 연구과제 수행 및 심의 등에 참여하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임민영(초교 07) 동창

### 2017 서울신문 신춘문예 동화 부문 당선

임민영 동창이 동화 「누구 없어요?」로 '2017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다. 시상식은 1월 16일(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양지윤(윤지양, 독문 16) 동창

### 2017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 당선

양지윤 동창이 2017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전원 미풍 약풍 강풍」으로 당선되었다. 시상식은 1월 25일(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 5월의 행사

5월 16일(화)에 이화 창립 131주년 기념 감사찬양제가,  
5월 31일(수) 오후 2시에 이화 창립 131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동창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이화의 얼굴

한동대 교수로 제2의 삶 도전하는 이지선 동창

##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아온 삶, 후회는 없어요”

역경을 이겨내고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펴내며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된 이지선(유교 01) 동창이 최근 한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임용되면서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모교를 졸업하고 2008년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재활상담학 석사, 2010년 컬럼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그리고 지난해 6월 UCLA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온 이 동창은 “제가 교수로 임용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 일처럼 좋 아하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얼마 전 이 동창은 가족, 친구들과 함께 일본 도쿄와 후쿠오카로 여행을 다녀왔다. 15년 전 화상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머물렀던 도쿄의 아파트와 교회를 다시 가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곳으로 여행을 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어머니와 함께 생활했지만, 1년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때는 혼자였다. 혼자서 낯선 곳에서 생활하는 데 두려움은 없었냐고 묻자 “어머니가 함께 있지 않아도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고, 무엇보다 어머니나 저나 뭘 몰라서 용감했던 것 같다”며 웃었다. 그녀의 책에서 ‘은근 계모’라

는 별칭으로 불린 어머니가 더 독립적인 분인 것 이냐 물으니 이 동창은 “사실 그렇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동창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언론 인터뷰나 방송에서 보이는 대로 그녀가 매우 유쾌하고 활동적이며 적극적인 사람인 줄 알았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긍정하며 상대방을 유쾌하게 사로잡는 유머 감각을 지닌 것은 맞지만, 그녀는 매사에 신중하고 겸손한 사람이기도 했다. 특히 자신의 인생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하나님의 인도대로 등 떠밀리듯 살아온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나님 이 등 떠밀면 그분 뜻대로 살 것이라고 말하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다.

### 대학 4학년 꽃다운 나이에 겪은 교통사고

이지선 동창의 인생의 큰 전환점은 그녀가 모교 유아교육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 7월, 이 동창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와 함께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음주운전 차량이 낸 7중 추돌사고로 전신의 55%에 3도 화상을 입었고, 온몸의 반 이상 피부를 걷어 내는 수술을 시작으로 30여 차

례가 넘는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다. 첫 수술을 한 의사는 “수술을 잘 마쳤지만 살 가망이 높지 않다. 설사 산다고 하더라도 사람 꼴은 안될 것이고, 손가락도 다 잘라야 한다”고 했다.

눈꺼풀이 다 타버려 눈을 감을 수조차 없었고, 얼굴에서 흘러나온 진물로 고통스럽던 어느 날, 중환자실에 날아 들어온 날벌레 한 마리가 이 동창의 눈가에 앉았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돌릴 수도, 손가락을 까딱할 수도, 눈을 깜박일 수도 없었다. 작은 날벌레 한 마리도 쪽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날, 그녀는 자신이 살아 있다는 사실에 안심했고 다시 일어서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다. 그리고 가족들의 응원과 신앙의 힘으로 기적 같은 삶을 되찾았다.

사고 직후 그녀의 삶을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괴롭고 힘든데 당사자인 이 동창은 그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원망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이 결코 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명료한 대답이 폐부를 찌르는 듯 강렬했다.

“대학교 2학년 때 계단에서 넘어진 적이 있어요. 계단 끝 금속으로 된 부분에 다리가 찢어져서 흉터가 생겼는데 치마를 입을 때마다 어머니는 그 흉터를 보고 속상해했어요. 아마 제 상처가 그 정도였으면 속상할 수도, 원망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상처가 너무 어마어마하고 심각하고 크니까 원망할 힘도 없었어요. 고통이 너무 커기 때문에 피의자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여력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저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뿐이죠.”



이지선 동창과 가족들

원망할 수조차 없었던 고통의 시간은 이 동창이 내린 결론처럼 ‘상도 별도’ 아니었다. 그저 그런 일이 생겼고, 그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고 많은 것을 잃었으며, 많은 것을 잃고 나니 그것들이 어쩌면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이 상이 아니었으니 그날 잃은 것도 별이 아니라 고 깨달은 것.

“가볍게 말하면, 내 분수를 알았다고나 할까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결코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그녀의 말은 깊은 울림이 있었다.

### “내 삶의 결정권은 내게 있어요”

사고 이전 이지선 동창은 평범한 여대생이었

다. 처음에 그녀는 대학을 다닐 때 큰 의욕이 없었다. 어머니가 가라 해서 유아교육학과를 선택했고, 동기가 없어 그랬는지 재미도 못 느꼈다. 남녀 공학 다니는 친구들을 부러워했던 적도 많았다.

“그런데 정작 졸업 후 저는 ‘이대 프리미엄’을 많이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모임에서 잠깐 동창들을 만날 때면 언제나 따뜻하게 말씀을 건네주셔서 큰 용기를 얻었고, 뉴욕에서 공부할 때는 동창회에서 장학금도 주셨습니다.”

이지선 동창은 졸업 후 모교에 대해 훨씬 더 큰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며 환하게 웃었다.

이 동창은 사고 이후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었고, 공부하는 것에 재미를 느꼈고, 자신의 전공에도 의미를 갖게 되었다. 특히 4학년 때 유치원 실습을 나갔다가, 밝고 잘 뛰어놀고 적극적인 아이보다 외톨이처럼 소외된 아이들에게 눈이 더 가는 것을 경험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 놀이치료를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태도랄까, 약자에 더 마음이 가는 자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의 마음과 지금이 만나는 지점이지요.”

이 동창은 미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우리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도 같은 인간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기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 있지요. 다만 사회적 참여에 제약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나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개선되고 인식이 바뀌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지요.”

우리나라도 장애인을 위한 명목상의 제도들은 갖추고 있지만 실제 삶에 적용했을 때 실효성이



한동대 교수로 임용된 이지선 동창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장애인 정책에는 수많은 연구 자료가 필요하기에, 그녀는 정책을 만드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지는 못하더라도 연구 자료를 만들고 그런 것을 통해 훌륭한 정책을 만드는 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올해 그녀의 목표는 한동대 강의와 미뤄둔 원고를 써서 책을 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창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를 요청하자 그녀는 꽤 오랫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다.

“내 삶의 태도가 내 행복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모두에게는 삶의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가 있지요. 자유롭게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지점을 선택하고 그 태도를 잘 유지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동창의 말은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 행복해 보이는 얼굴은, 이 동창의 삶의 태도가 이루어 낸 ‘큰 상’ 임에 틀림 없어 보였다.

글·전세영(사학 94, 이화동창 편집위원)

# 제2회 ‘빛나는 이화인’ 상 후보를 추천해 주십시오

한국 최초의 여성고등교육기관으로 탄생한 이화여자대학교는 2016년 창립 130주년을 맞아  
‘빛나는 이화인’ 상을 제정하였습니다.

‘빛나는 이화인’ 상은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이화 정신에 입각한 선도적 행동으로 타의 모범을 보이고 탁월한 역량으로 사회에 공헌한 동창들을 선정하여, 그 공을 치하함과 동시에 그 공적을 널리 알림으로써 새 시대에 걸맞는 이화인의 지표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한 상입니다.

귀하를 ‘빛나는 이화인’ 상 수상 후보자 추천인으로 위촉하오니 아래 시상 요강을 참조하여 훌륭한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131주년을 맞는 5월 31일(수) ‘동창의 날’ 행사에서 시상할 제2회 ‘빛나는 이화인’ 상 수상 후보 추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   |
|------------|---|
| ■ 시상내용     | 상패와 증서  |
| ■ 수상 후보 자격 | 과학, 경제, 의료, 법률, 교육, 문화, 예술, 종교, 언론 등 각 분야에서<br>이화의 정신에 입각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뛰어난 업적으로 사회 발전에<br>크게 기여하여 이화여자대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로 본회의 회원 |
| ■ 추천인 자격   | 각 과, 대학 및 대학원 동창회장<br>국내 및 해외 지회장<br>전문직 동창클럽 회장<br>동창 100인 이상(연명 날인)   |
| ■ 구비 서류    | 추천 사유 및 후보자 업적사항 진술서 1통(본회 소정양식)<br>후보자 이력서 1통(명함판 사진 1장 포함)<br>후보자 업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기타 필요 서류                                |
| ■ 접수 기간    | 2017년 4월 17일(월)부터 21일(금)까지<br>※우편 접수는 4월 21일(금)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함  |
|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우 03760)<br>※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니 주요 증빙자료는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동창회 사무실(02-3277-338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총동창회 소식

## 2월 정기임원회에서 2016 추경예산안과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2017년 2월 정기임원회가 출석 32명, 위임 3명으로 성원이 구성된 가운데 2월 9일(목) 오후 2시 30분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4호에서 열렸다. 2017년 새해 첫 임원회의가 열린 이 자리에서, 임원 개선 이후 첫 참석한 대학 회장들의 인사와 함께 여러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2016년 추경예산안 및 2017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가 있었다. 2016년 추경예산안 및 2017년 예산안을 보고한 이승연(컴공 89) 회계는 2016년은 바자회 및 이화인의 밤 행사 취소에 따른 수입 감소가 있었으나, 《이화동창》 발행 부수와 발송량을 대폭 삭감하여 수지를 맞추고, 긴축 재정을 실시하여 절약하였음을 보고하였다. 2016년 추경예산안 및 2017년 예산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한편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2017년 입회한 신입 동창 3,500명 중 450여 명만이 총동창회 입회비를 낸 상태지만 입회비 납부와 관계없이 동창수첩을 지급했다고 보고하였다.

이어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2017년 3월 11일(토) 2시에 신입 동창 환영회 및 정기총회가 열린다는

것을 공지하고, 동창 환영사는 이정화(독문 74) 인문대학회장이, 신입 동창 답사는 사범대에서 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여러 해에 걸친 바자회 판매 저조와 참가업체 사정 등으로 소바자회 진행이 어렵다고 공지하였으며, 정기총회에 각 과에서 다섯 명 이상 참석해줄 것을 독려하였다.

기타 안건으로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 회장단 선출을 위한 전형위원으로 김순영(약학 62, 전형위원장)·윤순희(교육 65) 고문과 홍승진(문정 65)·정용희(약학 75)·조미숙(식영 83) 동창이 2월 7일(화)에 선출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현 총동창회장 및 대학 회장단과 임원은 차기 동창회장 선출 관련 작업에 일체 관여할 수 없음을 덧붙였다. 전형위원 선출 건은 양수화(교대원 74) 교육대학원 회장의 동의와 김미령(커미부 69) 사회대학 회장의 재청으로 통과하였다.

또한 런던 지회에서 지회명을 ‘영국 지회’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 3월 정기임원회에서 2016년 결산안 승인

3월 정기임원회가 3월 9일(목) 오후 2시 30분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4호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2016년 결산안이 승인, 통과되었고, 3월 11일(토) 오후 2시 열리는 정기총회에 대한 안내와 함께 임원들의 역할 분담을 공지하였다.

기타 안건으로 4월 20일(목) 12시 열릴 예정인 각 과·지회장 간담회를 공지하였으며, 안영호(중문 85) 서기가 모교 총장 선출에 관한 4자협의 회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다.

## 2017년도 정기총회에서 17대 회장 연임 발표

3월 11일(토) 오후 2시 총동창회는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정의숙 이화학당 전 이사장, 총동창회의 윤순희(교육 65)·김순영(약학 62)·조종남(의학 75) 고문 및 25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17대 김영주 총동창회장의 연임이 통과되었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총동창회 임원들은 앞으로 2년간 총동창회와 21만 이화동창을 위한 나눔과 섬김의 봉사를 할 예정이다.



2017년도 정기총회 전경

### 17대 총동창회 임원 명단

직위	이름	학과, 졸업연도	직위	이름	학과, 졸업연도	직위	이름	학과, 졸업연도
고문	윤순희	교육 65	문화부장	한숙영	제약 79	조형대학회장	봉지희	섬예 85
	김순영	약학 62	사업부장	이혜원	식영 83	체육대학회장	박경실	체육 78
	조종남	의학 75	재정부장	임산희	유교 81	사범대학회장	신경희	수교 77
	김영주	교육 71	음악부장	박미자	성악 86	법과대학회장	이명숙	법학 86
	정준순	약학 72	홍보부장	이영희	사학 88	경영대학회장	서지희	경영 85
	김광옥	식영 75	회우부장	허현미	체육 89	의과대학회장	이남희	의학 79
감사	남상택	물리 74	지역부장	배혜화	불문 77	간호대학회장	조혜숙	간호 76
	이영란	체육 76	선교부장	성혜옥	영문 70	약학대학회장	박하영	약학 77
총무	송은미	유교 85	정보통신부장	황정인	컴공 90	생활환경대학회장	임정희	가관 79
	안영호	중문 85	인문대학회장	이정화	독문 74	국제학부회장	이동은	국제학부 05
서기	한미경	물리 88	사회대학회장	한인영	사복 72	대학원회장	곽은아	대학원 88
	정영출	경영 72	자연대학회장	권오향	수학 78	교육대학원회장	양수화	교대원 74
	이승연	컴공 89	공과대학회장	김미영	컴공 85	디자인대학원회장	장규순	디대원 89
			음악대학회장	임 진	작곡 72	사회복지대학원회장	이수연	사복대학원 16
						정책과학대학원회장	전혜성	정책대학원 08

## 모교 학군단 입단자에게 기념품 나눠주며 격려

모교는 2월 21일(화) 오후 2시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이화여대 학생군사교육단 제1기 입단식을 개최했다. 입단식에는 제1기 이화여대 학군단 입단자 30명과 학부모를 비롯해 김영주 총동창회장, 모교의 송덕수 총장직무대행, 신철호 이화여대 학군단장, 최수홍 ROTC 중앙회 상근 부회장 등 교내·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이 자리에 참석하여 학군단 입단자 30명에게 기념품(5만원 상당의 백팩)을 전달하고 이들을 격려하였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이 모교 학군단 입단식에 참석해 제1기 이화여대 학군단 입단자들을 격려했다

### 선교부 소식

## 2017년 총동창회 선교부 겨울 수련회 ‘선교사 멤버 케어’란 주제로 열려

총동창회 선교부는 1월 17일(화)에 겨울 수련회를 개최했다. 다락방전도협회 애찬실에서 열린 이번 수련회에는 한국해외선교회(GMF)의 상담팀을 담당하고 있는 이현숙(사학 74) 선교사가 ‘선교사 멤버 케어를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이 선교사는 선교사 멤버 케어(Member Care, 이하 MC)는 전인적으로 선교사를 돌보는 사역이라고 정의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선교 사명에서 선교사는 선교 과업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평생에 걸친 발전과 복리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169개국에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한국은 매년 5.1%의 선교사가 대인관계 갈등과 스트레스로 중도 탈락한다고 한다. 그 중 약 70% 정도가 예방 가능한 사유라고 하니 MC가 선교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알 수 있다.

강의를 듣고 나서 그룹별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날 현지에서 사역하는 동창 선교사들도 참석했는데,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토론의 열기는 뜨거워져 갔다. 동창들의 열띤 나눔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 중심의 MC’, ‘귀국 후 선교사들의 거쳐 마련 준비’, ‘들어주는 섬김의 필요성’, ‘21만 이화동창의 기도와 돌봄의 절실함’, ‘사역을 위한 이해와 연합의 중요성’ 등의 주제를 던지며 선교부가 MC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마음을 모았다.

수련회는 총동창회 선교부 부장 김미순(기독 75) 동창이 2017년 선교부 일정과 계획을 발표하며, 마무리했다. 추운 날씨에도 27명의 동창이 함께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애찬을 나누고, 교제하는 따스한 시간을 가졌다.

## 성령 충만 에티오피아 선교 공연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에티오피아 선교를 다녀온 신입단원 오정민입니다. 이번 선교 공연은 환경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해발 2,355m의 고산지대여서 계단을 천천히 오르기만 해도 호흡이 가쁘고 어지러웠습니다. 또한 음향시설, 조명, 무대 등 공연 환경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살아계셔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기에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연은 Addis Ababa Church에서 열렸습니다. 공연 며칠 전부터 교회 밖 도로에 길게 줄 서 있는 수많은 군중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공연 시작 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목소리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면서 본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간절하고도 빛나는 눈빛은 아마 오래도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공연한 Oromo Curtural Center의 2회 공연과 Mulu Wongel Ketena 2 Church에서의 공연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우리는 기독교 유적지를 탐방하기 위해 수도였던 Addis Ababa를 나와 Axum과 Lalibela로 갔습니다. 돌을 깎아 만든 거대하고 웅장한 12개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신앙심과 순종을 느낄 수 있었



에티오피아 선교 공연을 다녀온 이화발레앙상을 단원들

고, ‘나는 지금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들처럼 순종할 수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며 함께 고생한 신은경(무용 78) 교수님, 이 사역을 준비해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항상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신 정용석 목사님, 또 열악한 장소의 환경에도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성혜옥(영문 70) 권사님, 유병국(간호 75) 선교사님 그리고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공연과 일정을 안전하게 도와주신 박종국(장은혜 선교사 남편) 선교사님과 장은혜(영교 85)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서로를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었던 언니들과 동생들(9 Angels) 덕분에 이 선교를 더욱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생명의 씨앗이 되었길 바랍니다.

글·오정민(무용 13)

##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주님의 축복과 풍성한 감사제목들이 넘치길 기도드립니다.

김명희 선교사가 작

년 9월에 오른쪽 어깨수술을 했습니다. 많이 호전되고 있지만 통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성수(19세)는 6개월만 있으면 대학 입학 마지막 시험을 보고 9월엔 대학생이 됩니다. 성수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고, 대학 선택에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린(16세)이는 학교 안팎의 활동으로 무척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성수와 성린이는 모두 힐드그린 교회 주일학교에서 보조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는 매달 한 번씩 세인트 앤드류스 교회에서 반주를 합니다.

### 힐드그린(Heald Green) 교회 소식

교회에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교회 미래를 위한 비전 모임이 자발적으로 시작되어 정기적으로 기도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비전 모임의 열매로 탄생한 새로운 찬양 그룹이 예배 시간에 노래와 악기 반주로 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찬양 인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형가리인 마이크 가족(부인과 세 자녀)이 저희 교회에 정착했습니다. 마이크는 복음 전도와 평신도 사역자로 헌신하겠습니다.

다 합니다. 한편 알리스라는 자매가 새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알리스 자매가 힐드그린 교회에 정착해서 다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힐드그린 지역에 있는 교회(성공회, 연합개혁교단, 오순절 교회, 천주교회와 힐드그린 교회)들이 연합하는 모임에 제가 올해 리더로 섭기게 되었습니다. 리더는 목회자들 중에서 1년씩 돌아가면서 맡게 됩니다. 연합 사역으로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야외 성탄예배, 부활절 동네 행진과 야외 예배, 지역 호스피스 병원 심방, 상설 카페, 청소년 사역, 정의와 평화 모임(타종교와의 대화 등), 교회 연합예배 등이 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세인트 앤드류스(St. Andrew's) 교회 소식

교회 성도들의 고령화로 최근에 두 분이 돌아가시고 병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안타깝게도 예배 인원이 더 줄었습니다. 하지만 감사

하게도 새 성도 외국인 어거스(Trinidad And Tobago 출신)가 몇 달 전부터 꾸준히 교회에 나오더니 저희 교회에 정착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화요커피 모임과 수요 성경 공부 모임, 매달 한 번 장애인들을 초청해서 게임과 함께 간단한 점심과 차를 제공하며 함께하는 모임 등이 더욱 활성화되어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브라운리 그린(Brownley Green) 교회 소식

작년 가을에 네 명의 성도가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영국 교회는 등록 교인이 되려면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본인의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네 명의 성도들(브라이언, 리사, 진, 조이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에 정착하였습니다. 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킴 자매는 요즘 교회에 나오지 않고 다시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킴 자매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10월부터 8주 동안 진행된 알파 코스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알파 코스는 주 1회 비신자와 초신자들을 초청해 식사와 교제를 하며 복음, 간

증 등을 나누는 집회입니다. 저와 함께 은퇴한 브랜다 목사님, 평신도 사역자 사라 님이 함께 말씀을 전하였고, 몇몇 분들이 자비로 식사를 만들어 주어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매주 10~25명 정도 참석하였는데 이 중 데이비드는 알파 코스를 계기로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가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위든쇼(Wythenshawe) 지역에 있는 교회들

세인트 앤드류스 교회는 브라우니 그린 교회와 함께 지리적으로 위든쇼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위든쇼에는 같은 노회에 속한 세 교회가 더 있는데, 이 다섯 교회 모두가 건물 보수가 시급하며, 교인 수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거나 부족한 재정으로 건물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회 차원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뜻이 모아져서 은혜 가운데 해결해 나가도록, 이 일을 책임 맡은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각 교회들이 이기적이지 않고 합리적인 사고와 방법으로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문희곤(김명희·특교 90 동창 남편, 선교사)

### ♥ 기도해 주세요 ♥

#### \*가족을 위한 기도

- 김명희 선교사의 오른쪽 어깨의 통증이 사라지고 호전되도록
- 성수가 대학 입학까지의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대학선택에 지혜를 주시도록
- 성수와 성린이가 기쁨으로 교회에서봉사하고, 아름다운 품성으로 자라나도록

#### \*사역을 위한 기도

- 영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 사역에 지혜를 주시도록
- 힐드그린 교회에서 기도회(월 1회)를 시작했는데, 세 교회 모두 기도부흥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 힐드그린 교회에 인도인 노린 자매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 세 교회당에서 하고 있는 사무 일들, 정기적으로 모이는 각종 단체와 모임을 축복해 주시기를

## “학창 시절엔 호랑이 선생님, 지금은 친정 엄마 같은 분”



최영희 명예교수

1939년생. 모교 간호학과를 1962년에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간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70년에 모교 간호학과에 부임해 2000년까지 봉직하면서 간호대학 학장을 지냈다. 2000년 16대 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을 역임했으며, 대한간호협회 회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을 지냈다.『간호의 본질』,『성인간호학 1, 2』,『간호과정론』,『노인과 건강』등 10여 권의 저서를 펴냈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로부터 제42회 플로렌스나이팅게일 기장(記章)을 수상했다.

### 함께한 제자들(졸업연도 순)

- 이금재(75) 가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이종숙(76)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원장
- 조혜숙(76) '너싱홈 그린힐' 원장, 현 간호대학 동창회장
- 변은경(83) 이대목동병원 간호부원장
- 정승은(86) 한국교통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최영희 명예교수와 제자들과의 만남은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졌다. 간호대학 동창회 측은 속전 속결로 연락을 주고받고 약속 장소를 정했다. 지난 2월 마지막 날 약속 장소에 도착한 순간 또 한번 놀랐다. 애초에는 딱 3명의 제자만 불러 알찬 대담을 하기로 했는데, 약속 자리에는 5명이 와 있었다. 최영희 명예교수는 “다른 교수들 보니 (‘나의 스승 나의 제자’ 대담에) 똘똘한 제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더라고. 나도 자랑할 제자들이 많거든” 하며 웃었다.

두 시간 넘게 진행된 대담 내내 최 명예교수의 잔잔한 유머와 제자들의 화통한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최영희 명예교수는 한국 간호학계는 물론, 한국 여성사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을 만한 굵직한 역할을 해왔다. ‘성인간호학’과 ‘노인간호학’의 학문적 체계를 세웠고, ‘간호학’이 신체적 돌봄의 개념에만 국한되던 한국 간호학계에 인간과 환경, 비교문화적 개념을 어우른 ‘전인적 간호학’의 개념을 들여왔다. 16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는 윤후정 여성특별위원장과 함께 여성특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법안’을 국



왼쪽부터 정승은·이종숙 동창, 최영희 명예교수, 조혜숙·이금재·변은경 동창

회에 통과시켰으며, ‘군 가산점 폐지’에 앞장서는 등 여성 권리 신장에 앞장섰다. 또한 입양아를 친자식처럼 키울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친양자제도’를 대표 발의하였으며 일정 인원을 여성에게 배분하는 ‘여성할당제’ 확립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

최영희 명예교수와 제자들은 끈끈했다. 실습 병원이나 학교 행사에서는 물론 신년하례식 등에서 수시로 만나 온 최영희 명예교수와 제자들은 서로의 근황을 잘 알고 있었다. 기억력이 비상하다는 최 명예교수는 제자 한 명 한 명의 이력을 고유명사까지 줄줄이 꿰고 있었다.

**최영희**\_\_이 자리에 모인 내 제자들 다 근사하네. 이외에도 올 제자들 많아요. 몇십 명은 되는데, 다 초대하지 못해 아쉽네.

**변은경**\_\_간호대학은 학교와 병원에서 서로 자주 만나서 선후배 간사이가 유독 긴밀한 것 같아요.

**조혜숙**\_\_맞아요. 간호대학은 단일 대학인데다가 한 반에 60명이라서 가족같이 지냈어요.

**최영희**\_\_그런 데다 다 기숙사 생활을 했잖아. 그러니 형제나 마찬가지지. 또 병원에 가면 도제 교

육처럼 선배한테 배우는 게 많으니 더 친밀하게 지낼 수 있지.

**변은경**\_\_선생님께서는 특히 제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기억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둘만 아는 에피소드를 잊지도 않으시고.

**최영희**\_\_여기 모인 제자들을 한번 소개해 볼까? 이금재 교수는 가천대 간호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내 학문적인 맥을 잇고 있고, 이종숙 원장은 임상 전문가야. 중환자실 수간호사로 오래 있었지. 대학병원 10년, 한방병원 10년, 지자체에서 10년 있다가 몇 달 전에 퇴직했어. 조혜숙 원장은 대부분 졸업 후 교수나 임상직을 선택할 때 영국의 선진 노인요양 시스템을 보고 와서 가정방문 간호사의 길을 걸었지. 힘든 길을 택해서 솔직히 많이 놀랐어. 지금은 경기도 광주에 중풍·치매 노인들을 위한 장기요양 시설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지. 시설이 아주 좋아. 당시 의사협회장도 부모님을 거기에 모셨잖아.

**제자들**\_\_진짜 대단하세요.

**최영희**\_\_아직 안 끝났어. 변은경 부원장은 간호사가 거칠 수 있는 직함을 다 거쳤어. 이화동대문 병원, 목동병원에 있다가, 시립병원인 서남병원

에 갔다가, 2015년에 이대목동병원 간호부원장으로 스카우트됐지. 오늘의 막내인 정승은 교수는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2년간 간호사로 임상 경험을 쌓고 내가 박사과정 지도교수를 했어. 3년 정도 이화 간호대학 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박사를 하고 당시 충주대학교(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로 갔지.

**이종숙** 제가 선생님을 가장 오랜만에 뵤 듯해요. 한 5~6년 만이죠. 퇴직을 하니 한결 여유가 생겨요. 선생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최영희** 그야말로 놀아. 현정회라고 전직 국회 의원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홍보편집위원을 8년째 맡고 있지. 『여성의정 70년사』를 만들고 있는데, 아주 재미있어.

**변은경** 학창시절 ‘최영희 선생님’ 하면 무서운 선생님으로 통했어요. 3학년 때 학도호국단 임원들과 선생님 댁에 세배 가서 무서움을 풀자고 했죠. 선생님 댁 초인종을 누르고 긴장해 있는데, “왔니” 하며 아이 같은 모습으로 맞아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선생님에 대한 무서움이 사라졌어요.

**최영희** 내가 공부를 시킬 때에는 무서웠지. 재시험 제도가 없을 때에도 재시험을 보고, 재시험에 탈락하면 삼시험을 봤지.

**변은경** 간호학은 사람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한 치의 양보 없이 〈성인간호학〉을 배웠던 게 두고두고 도움이 됐어요. 덕분에 성장했고요.

**정승은** 선생님은 성인간호학 쪽으로 앞서 있으셨지만, 제가 4학년 때에는 〈노인간호학〉을 들었어요.

**최영희** 1980년대 중반에 〈노인간호학〉을 처음

개설했지. 성인간호학이 노인간호학으로 이어지거든.

**이금재** 선생님은 제게 학문의 재미와 매력을 처음으로 알게 해주신 분이에요. 사실 별 생각 없이 간호학과에 입학해서 1~2학년 때에는 공부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3학년 때 선생님 전공인 〈성인간호학〉을 들었는데, 눈과 귀가 번쩍 뜨였어요. 당뇨병의 생리병리학적 근거에서부터 증상과 원인, 치료법까지 딱 떨어지게 논리정연하게 가르쳐 주셨죠. 그때만 해도 주입식 교육이 많았고, 달달 외우면 점수가 잘 나왔는데, 선생님 수업은 달랐어요. 강의가 너무 재밌었죠. 그때부터 간호학에 흥미가 생겼어요.

**최영희** 그랬구나. 나는 간호의 질적 연구를 많이 했거든. 간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거든. 또 비교문화사적인 돌봄도 중요하고.

**이금재** 제가 학사를 졸업하고 10년 후 석사, 석사 졸업하고 10년 후 박사를 했잖아요. 그때마다 학문의 방향이 확확 바뀌더군요. 학부 때에는 이학 중심이었다면, 석사 때에는 인문사회적인 측면이 강화됐어요.

**최영희** 내가 그렇게 방향을 틀었어. 인간은 신체도 중요하지만 정신과 영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사회문화적 요소도 영향을 받잖아. 간호학이 점점 전인적 돌봄으로 가야 한다고 봤지. 간호학 초기에는 신체적인 면에만 주력했다면 학문이 익어갈수록 인간을 돌보는 전인적 간호로 가야 하지.

**조혜숙** 저는 선생님한테 박사과정을 지도받지 못해 서운하고 아쉬웠어요. 노인간호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46세에 어렵게 대학원 박사과정에 지원했는데, 선생님께서 “넌 아직 젊지 않

니. 선배들한테 먼저 기회를 줘라” 하며 털락시키셨죠. 나중에 보니 대학 교수로 계시는 막강한 선배님들이 대기하고 계시더군요.

**최영희** 몰랐네. 서운했겠다.

**조혜숙** (웃음) 당시에는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았지만 고려대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모교 밖 인맥도 생기고 시야가 넓어지면서 모교에 대한 사랑이 커지더라고요. 밖에서 바라보는 선생님은 너무 멋지셨어요. 이화 간호학과뿐 아니라 대한민국 간호사 전체의 자랑이셨죠. 특히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여성할당제를 통해 여성의원 수를 높이는 결정적 역할을 할 때 너무 멋지셨어요.

**최영희** 사실 국회의원직을 받아들이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정년을 5~6년 앞둔 시점이었는데, 그때 인류학자와 공동으로 한국 간호 본질을 찾는 인류학적 연구에 몰입할 때여서 학문적으로 발전시킬 숙제가 많이 남았거든. 국회에 가면서 이어가지 못했고, 그게 지금도 아쉬워.

**정승은** 선생님이 넓힌 영역이 또 생각나네요. ‘횡문화’라는 비교문화적 간호학 말이에요. 그때 만 해도 ‘저렇게까지 넓힐 필요가 있을까’ 했던 게 사실이에요. 한데 2000년대 들어 다문화사회가 되면서 그 학문이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이종숙** 박사과정 수업 첫날이 생각나요. 이대 병원 수간호사를 하면서 석사를 했는데, 설령설령 하려다 첫 수업에서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죠. 바쁜 건 알지만 대충하면 안 된다며 삶의 지혜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병원에서는 선후 배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집에 가서는 남편에게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해라. 대신 그 시기의 아이들은 놓칠 수 없으니 아이와 공부에만 집중하-



대담 내내 최영희 명예교수와 제자들의 화통한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라”고 하셨죠. 그 말씀이 두고두고 도움이 됐어요.

**정승은** 처음 뵙 때 교학과장이셨고, 무서워서 다가가기 어려웠어요. 4학년 취업상담 때 세브란스병원에 가라고 하실 때에는 ‘나를 내치시는구나’ 하고 서러워서 엄청 울었죠. 2년간 현장 경험을 쌓다 보니 선생님 의중을 알겠더라고요. 이후에도 제 길을 하나하나 이끌어 주셨어요. 지금 22년차 교수인데, 이 대학도 선생님이 지원하라고 조언해 주셨죠. 친정 엄마가 돌아가실 때에는 전화로 같이 슬픔을 나눠 주셨는데, 그 이후로 선생님이 엄마처럼 느껴져요.

**이금재** 점점 선생님을 닮아가는 걸 느껴요. 간호학이 적성에 안 맞는다면 찾아오는 아이에게 선생님이 해주셨던 이야기를 해주세요.

**최영희** 큰 바위덩어리를 산꼭대기로 힘겹게 올리고, 떨어지면 또 올리는 시시포스 신화?

**이금재** 네. “피할 수 없는 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견뎌보라”는 말을 선생님이 했던 방식 그대로 해줘요.

**변은경** ‘나도 선생님처럼 나이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친정 엄마처럼 느껴지면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 주셨는지 새록새록 느껴져요. 특히 있어야 할 자리와 아닌 자

리, 나설 자리와 아닌 자리에 대한 판단력이 정확 하시잖아요. 선생님처럼 현명하면서 모든 사람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늙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혜숙** 저도 기관을 운영하다 보니 직원 관리 가 가장 어렵더군요. 선생님의 부드러운 카리스 마를 배우고 싶어요.

**최영희** 그렇게 생각해 주니 영광이다. 내가 짊

었을 때에는 너무 엄했나 봐. 제자들이 다 내 자식 같았거든. 우물에 빠질 게 뻔한데 가만히 보고 있 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 제자들을 혼내는 것이 사 랑하는 것인 줄 알았어. 서운한 제자들도 있을 텐 데 이렇게 각자 자리에서 훌륭한 역할을 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줘서 고마워요.

진행 및 정리·김민희(국문 99, 이화동창 편집위원)

## 한국 간호학의 역사 그 자체, 모교 간호학과

모교 간호학과는 한국 간호학의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 1887년 한국 최초의 여성병원인 '보구여 관'을 설립한 것이 국내 간호학의 효시이자 모교 간호학의 시작이다. 1880년대까지만 해도 당시 한 국 사회는 "여자가 남자에게 진료를 받을 수 없다"며 많은 여성이 병을 앓으면서도 의료 혜택을 받 지 못했다. 미국 감리교 여성국의 도움을 받아 정동 이화학당 내에 '보구여관'을 설립했고, 1903년 선교 간호사인 마가렛 에드먼즈(Margaret J. Edmonds)를 중심으로 간호사 양성소를 개설하면서 간 호학이 견고한 틀을 갖춰갔다.

이후 모교 간호학과는 국내외 간호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학술적으로, 교육사적으로 간 호 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 크게 기여해 왔다. 1955년 국내 최초로 '간호학과'를 4년제 대학 학사과정으로 발족시켰는데, 이는 간호교육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간호가 단순히 '돌봄'의 개념을 넘어 타 학문과 동등하게 교류하면서 고등교육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됐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1960년에는 국내 최초로 대학원에 간호학 석사과정을 개설했고, 1968년에는 국내 최초로 간호학과를 간호대학으로 승격시켰다. 1979년에는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에 간호학을 개설했다(간호교육, 간호행정, 모자모건간호학). 1986년부터는 간호학 이론이 성인간호학, 정신간호학, 모자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의 4개 분야로 운영되었으며, 1996년에는 기초간호학, 여성건강 간호학, 정신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간호행정 등 7개 전공 분야로 확대되었다.



정동 이화학당에 있던 한국 최초의 여성병원 '보구여관'

# 제6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이화 창립 131주년을 맞아 총동창회는  
제6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올해로 6회째 맞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와 함께 온 가족이 모교를 방문하여  
그림도 그리고 교정도 돌아보는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일시 2017년 5월 13일(토) 오전 10시~오후 3시
- 장소 이화캠퍼스 내
- 참가자격 유치원 및 초등학교 1, 2, 3학년  
(이화동창의 손주나 자녀, 이화여대 교직원 자녀)
- 참가비 3만 원(2인 점심 제공)
- 접수 2017년 3월 29일(수)부터 선착순 마감  
(유치부 100명, 초등부 100명)
- 문의 총동창회 전화: 02-3277-3386~7
- 이메일 [ewhaalum@ewha.ac.kr](mailto:ewhaalum@ewha.ac.kr)

## 사회복지 60년 역사를 함께해 온 이화여대 종합사회복지관

한우리관 정문 앞에 위치한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은 대학 최초의 부설 사회복지기관으로 지난 60년 동안 지역복지관의 롤모델을 제시하고,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을 이끌어 왔다. 대학을 넘어 지역사회와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지원, 전문 프로그램의 개발과 현장 연구 활동, 나눔 리더십을 갖춘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양성이 이곳의 목표다.

### 지역사회 행복 건설에 앞장서

1956년, ‘이화 사회관’으로 출발해 세 번의 이전 끝에 교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고 어린이교실, 방과후교실, 집단상담실, 건강증진실, 작은도서관, 주민활동실 등의 시설을 갖춘 지금의 모습으로 거듭난 건 지난 2000년.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지역자활센터 2곳, 고용복지지원센터 1곳,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 등 6개의 주요 사회복지시설과, 영유아보육시설 2개소와 방과후보육시설 3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가장기요양시설, 해외사회복지센터 등 8개의 부속 시설을 갖추고 교내 복지관 내 50여 명을 포함한 160여 명의 직원이 곳곳에서 일하고 있다.

“교수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시설이라는 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복지관의 롤모델로서 정부 정책과 제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는 점, 또 사회복지관으로는 국내 최초로 캄보디아에 해외 복지센터를 갖고 있다는 점 등은 자랑할 만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영경(사복 89) 동창의 말처럼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역사와 궤를 같이할 만큼 그 역사성과 전문성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 60년 동안 시대와 지역사회의 아픔을 보듬다

전문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1947년 신설된 사회복지학과는 신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 지원과 복지 향상, 모교 학생들의 실습과 봉사 기회를 마련할 목적으로 부속 사회관을 구상했다. 기독교학과 과장인 캐나다 선교사 엘다 다이엘스와 사회사업학과 과장 이메리 교수의 이런 구상에 학생들이 뜻을 함께했다. 캐나다 연합선교부, 주한미군

군수원호처, 국제연합 한국재건국, 한미재단 등의 지원을 이끌어냈고 1956년 7월 6일 ‘이화 사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정문 앞 대신동 언덕(지금의 서부교육청 자리)에서 2명의 직원으로 출발했다.

전쟁 직후 대현동과 대신동 일대에 피난민과 이농민들이 몰리자 이화 사회관은 우선 극빈 어린이를 위한 웰 베이비 클러너을 만들고 의과대학 간호학과의 모자보건소와 협력해 의료치료 및 보건 위생 관리 활동을 벌여 나갔다. 부녀들을 위한 한글반과 야간학교를 개설해 한글, 한문 교육을 실시했고, 캐나다 USTS 및 모교 사회사업학과와 도서관학과의 협조로 도서실을 설치, 독서지도와 함께 근로 여성들을 위한 탁아 사업과 직업보도 사업을 실시한 것도 이 무렵이다.

이농과 산업화로 서대문구 지역의 빈곤화가 가속화되던 1960년대에는 이화 사회관을 정문에서 서문(지금의 다락방) 옆으로 이전하고 반나절 탁아 사업과 지역 여성을 위한 취미 교양강좌, 지역사회 조사활동, 청소년 교육과 상담보건 사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캐나다 기독교아동복지회의 협조로 1975년 3월 지금의 이화·신세계관 자리에 2층 건물을 신축하고 ‘사회복지관’으로 이름도 바꾸었다. 총장 직속 기구로 기구 개편을 단행하고 사회사업부, 어린이사업부, 법률부조사사업부, 지역사회간호사업부 등 4개 부서로 나눴다. 모자보건소와 유아원을 통합하고 저소득 가정의 심리적·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가정복지 사업, 유치원 과정의 이화교실과 학습지도를 포함한 잠재력 개발, 사회성 증진을 위한 집단 모임 등이 포함된 청소년교실도 이 시기에 실시했다. 이 무렵 학과에서 배출한 유능한 전문 인력을 흡수해 새롭고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사회복지관의 실험적 모델로 자리잡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가족 문제 연구, 가족치료를 시도한 가족치료실과, 취업모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한 어린이교실, 취약계층 가정의 가족 기능을 증진하고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한 가정조성 사업은 이후 정부의 재가복지 사업의 뿌리가 되었다.



모교 종합사회복지관의 지나온 모습들과 현재 건물 전경

## 사회복지의 룰모델과 패러다임을 이끌다

1980년에는 서대문구 및 마포구 전역으로 서비스 대상지역을 확대해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북아현동 지부를 시작으로 홍제동, 천연동, 연희동에 분원 및 지부를 설치하고 지부 사업의 기틀을 마련했다.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1989년.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의 저소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결연 사업 및 가정조성 사업을 실시해 오던 모교 종합사회복지관은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의 첫 수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임대아파트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교류와 통합이 주요 이슈로 등장했고, 지역 상황에 맞는 자활 지원 사업과 사회복지 서비스 사업이 필요했다.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구립 이화어린이집을 개원하고, 이듬해에는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 장애인과 노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갔다.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운영 능력을 인정받아 1996년 8월에는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 마포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으로 설치되었는데, 당시 5개 시범 지역자활센터 중 대학 내 사회복지기관으로는 유일했다. 취업 알선, 공동 작업, 협동조합 운영, 생업자금 융자 등의 사업을 통해 자활기업의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등의 성과로 2001년에는 서대문지역자활센터를 신규 지정받아 연희동에 별도 사업장을 마련하고 자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서대문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에 지정된 후발 주자로서 서대문구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인쇄, 도시락 공동체 등을 지원하고, 집수리, 녹화, 목공, 장 담그기 사업단 등을 활발히 육성하였다.

##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서 해외 지원까지

개관 때부터 아동, 청소년 및 여성을 주요 사업대상으로 가족 지원 서비스를 개발, 시행해 왔던 종합사회복지관. 2006년 5월 연희동에 모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아동가족지원센터를 여는 등 전문적인 가족 지원 사업을 확대 발전시킨 결과 9월에는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010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까지 수탁 운영하게 되었다.

또 2007년부터는 마포 지역주민의 자활 지원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 청소년, 장애인을 위한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고용복지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사회복지관 소속의 기관인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와 마포지역 자활센터는 같은 건물 내에서 다양한 업무협력을 추진함으로써 고용, 자활 및 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게 되었고, 2009년부터는 마포구립 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개소하여 장애인의 자립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을 한층 더 전문화했다.

모교 종합사회복지관이 국내 유일의 해외 복지센터를 설립한 것은 2011년. 2010년부터 캄보디아에서 해오던 사회복지전공 학생들의 실습 지도와 지역조사, 아동 멘토링 사업의

경험을 살려 교육 사업, 지역개발 사업 등 사업 영역 확대와 함께 그들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는 자생적 힘을 키우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자원봉사와 후원, 동창들의 참여가 든든한 힘

“대학 사회복지관이 지난 가장 큰 장점은 사회복지시설과 대학을 연결하고, 대학의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선도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 이로써 강의실 안의 피상적인 교육, 연구가 아니라 현장 실습 등 경험과 전문적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지역조직 팀장 이지은(사복 07) 동창의 말이다.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어려움과 기쁨을 나누고 지역사회와의 권익을 대변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자 목표라는 모교 종합사회복지관.

경제적, 심리적 위기계층을 발굴해 취업 알선,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상담과 교육, 집단치료, 가족치료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해 각 연령층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모임, 취미 활동, 정보 교류를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다시 봉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모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은 물론 타 전공 학생들에게도 전문성을 살린 사회봉사 기회를 제공해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이곳의 사업 방향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숨겨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과 후원이나 결연을 통한 나눔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법률상담부터, 의료 지원이나, 개인 및 가족상담, 예술 분야 교육지원 등 동창들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가 많거든요.”

동창들의 관심이 가장 든든한 후원이라는 관장 이영경 동창. 모교 종합사회복지관(02-3277-3285)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활동 분야를 소개받고 후원에 필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글·윤혜숙(커미부 86, 이화동창 편집위원)



모교 종합사회복지관은 2011년 국내 유일의 해외 복지센터를 캄보디아에 설립하였다



각 연령층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 봉사캠프 활동 모습



## 모교에서 운동할 곳을 찾는다면

올해는 꼭 늘어나는 뱃살을 줄여 보리라 결심한 동창들, 몸짱에 도전하고 싶은 동창들은 벗꽃 만개한 모교에서 운동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모교의 체육시설은 모교 사회체육교육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다. 1998년 사회체육원으로 시작한 사회체육교육센터는 2008년 ECC피트니스센터를 건립하여 명실상부한 이화의 재학생과 동창생 모두의 복지 공간으로 거듭났다.

모교 사회체육교육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교내 체육시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ECC 지하에 위치한 피트니스센터이다. 피트니스센터에서는 헬스, 골프, 요가, 소그룹 PT, 필라테스, 다양한 그룹 운동을 요일별로 운영하고 있다. 쾌적하고 넓은 실내 공간에 30대 이상

의 최신 유산소 운동기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 샤워실과 파우더 룸, 신체 지방 등을 측정하는 측정실, 개인 운동 상담실이 구비되어 있다. 또한 기구 사용법, 맨몸 운동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1주일의 무료 강습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과 피트니스 이용 방법을 안내한다.

GX Room 1은 ECC피트니스센터의 모든 그룹 운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매월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다양하고 재미있는 강습이 펼쳐진다. 강습이 없는 시간에는 개인 스트레칭이나 짐볼 같은 가능성 운동을 할 수 있다.

GX Room 2는 PT 트레이닝, 코어 PT, 필라테스 PT와 개인 운동 및 스트레칭 공간으로 이용되는 곳이다. 키바운더 트랙은 고밀도 특수 소재로 만



든 트랙장으로 걷기, 달리기, 웨이트 트레이닝 등 트랙 운동이 가능하다.

센터 내에는 높이 4.15m의 인공암벽도 설치되어 있어 근력과 집중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암벽 타기를 할 수 있다.

피트니스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는 골프 강습도 있는데, 골프는 체육대학(체육관 B동) 지하 1층 실내골프 연습장에서 진행된다. 개인 연습, 그룹 강습으로 진행되며 연습 타석 10타석과 퍼팅 장, 스크린골프 연습장이 구비되어 있다.

비용은 헬스가 한 달에 6만 6,000원(4개월 등록 시 5% 할인), 골프가 한 달에 11만 원, GX가 한 달에 6만 6,000원(2종목 등록시 20%, 3종목 등록시 30% 할인)이다. 소그룹 트레이닝은 한 달에 17만 6,000원(주 2회), 26만 4,000원(주 3회)이다. 또 PT는 한 달에 26만 4,000원(총 8회)이다.

두 번째 시설은 학생문화관 지하 1층에 위치한 체력단련실이다. 체력단련실에서는 정신과 육체의 힐링, 유연함과 자세의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춘 피트니스 요가, 발레, 방송댄스, 재즈댄스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그룹(GX)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GX실과 스쿼시를

배울 수 있는 스쿼시실이 있으며, 테니스는 북아현문 옆 테니스장에서 배울 수 있다.

체력단련실의 GX프로그램의 비용은 이화가족(동창과 직계 가족)의 경우 한 달에 6만 6,000원(주 2회), 8만 8,000원(주 3회) 두 가지로 나뉘며, 스쿼시 역시 한 달에 8만 2,500원(주 2회), 9만 3,500원(주 3회) 두 가지 중 선택 가능하다. 테니스는 한 달에 8만 2,500원(주 1회)이다.

세번째는 생활환경관 지하 3층에 위치한 수영장이다. 대학 최초의 수영장이었던 이화의 수영장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성인풀, 유아풀, 3미터풀을 갖춘 최신 수영장으로 탈바꿈했다. 오전 7시부터 시작하는 새벽 수영, 이화인과 여성만 수강할 수 있는 아침 수영, 저녁 수영반이 있어 강사와 협의하여 강습 시간과 진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화가족의 수영장 이용 비용은 강습의 경우 주 3회 7만 1,500원(1개월), 20만 3,500원(3개월), 주 2회 6만 500원(1개월), 17만 500원(3개월)이다. 자유수영은 1회 5,500원, 5회 2만 7,500원, 10회 5만 5,000원이며, 1개월 이용 시 6만 6,000원이다.

글·전세영(사학 94, 이화동창 편집위원)

#### 포탈 사용자(재학생, 교직원, 동창) 등록방법



#### 포탈 미사용자(이화가족, 부속기관협력업체) 등록방법



# 모교 소식

## 이화가족과 함께 여는 새해, '2017년 이화여자대학교 신년인사'

모교는 1월 2일(월) 오전 10시 ECC 이삼봉홀과 다목적홀에서 '2017년 이화여자대학교 신년인사'를 개최하며 새해의 문을 열었다. 131년 이화의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열린 이번 신년인사에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송덕수 총장직무대행 겸 학사부총장, 전·현직 교직원, 이화의료원 및 병설학교 교직원, 학생 대표 등 이화의 모든 구성원이 참석했다.

박정수 교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2017년 한 해는 이화가족 모두 서로 협력하고 의지함으로써 이화가 가진 소명과 직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양명수 교목실장의 기도로 막을 열었다.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송덕수 총장직무대행의 새해 인사와 덕담도 이어졌다. 장명수 이사장은 "지난해 이화 구성원이 겪은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 얻은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2017년은 이화가 한 단계 성장하는 전화위복의 해로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상처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 열

매로 지난해 말 교수평의회를 출범했다"며 "이것을 시작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함으로써 상처를 회복하고 이화의 품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화 구성원을 격려했다.

송덕수 총장직무대행은 "2017년 정유년(丁酉年)은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 이화의 구성원이 서로를 감싸 안고 화합, 협력하여 상처를 치유하고 이화의 위상을 높이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이어 "이화 구성원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 총장 선출을 통해 이화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년인사를 마치고 음악대학이 준비한 특별공



연이 이어졌다. 정호정(건반악기 전공) 교수의 피아노 반주로 신지화(성악 전공) 교수가 <강 건너 봄이 오듯>과 <마티나타(Mattinata)>를 들려주었

으며, 참석자들은 다과와 함께 새해 인사와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이화여대 학군단 제1기 입단식

모교는 2월 21일(화) 오후 2시 국제 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이화여대 학생군사교육단(ROTC, 이하 학군단) 제1기 입단식을 개최했다.

입단식에는 제1기 이화여대 학군단 입단자 30명과 학부모를 비롯해 송덕수 총장직무대행, 신철호 이화여대 학군단장, 최수홍 ROTC 중앙회 상근 부회장, 김영주 총동창회장 등 교내·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입단 신고, 학년장 수여, 입단자 선서, 우수 입단자에 대한 표창 및 상장 수여,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의 축전 낭독, 총장직무대행 축사, ROTC중앙회 회장 축사, 총동창회장 격려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군악대가 의식행사 및 축하 분위기를 돋우었다.

학군단 제1기 대표 임하영 후보생을 포함한 30명의 이화여대 학군단 입단자는 입단 신고와 입단자 선서를 통해 진·선·미 이화정신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갖춘 여성 장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우수 입단자 표창에서는 △송민선 후보생(대학총장 표창) △임하영 후보생(ROTC 중앙회 표창) △조한나 후보생(총동창회장 표창) △이하영 후보생, 이하은 후보생(학군단장 표창)이 표창과 부상을 수여받았다.

이승도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은 “어려운 역경 속



에서도 동계기초군사훈련을 훌륭하게 마친 이화여대 학군단에게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건넨다”며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해 나가길 바란다”고 축전을 전했다. 송덕수 총장직무대행은 “제1기 이화여대 학군단이 좋은 전통을 수립하고, 여성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인격을 모두 겸비하여 사회의 중추적 리더로서 거듭나길 바란다”며 “최고의 여성 장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2016년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여군은 1만 명을 돌파했으나 여성 간부의 비율은 5.5%에 불과하다. 고도의 전략·전술이 필요한 현대전에서는 종래의 전투병과뿐만 아니라 전투지원, 행정지원 등 다양한 병과의 융합이 필요하므로 군 내부에서 여성 리더십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전

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화여대 학군단은 진·선·미 이화정신을 바탕으로 한 우수 여성장교의 산실로서 군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화여대 학군단은 3월부터 제2기 선발을

시작했다. 2학년 재학생(부·복수전공 신청자의 경우 3학년)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원서접수를 받았으며, 모교 경력개발센터가 운영하는 ‘ROTC 준비반’을 통해 필기시험, 체력검정, 면접 등을 대비할 수 있다.

## 2016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모교는 2월 27일(월) 오후 2시 대강당에서 ‘2016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갖고 학사 2,397명, 석사 1,215명, 박사 121명 등 총 3,73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학위수여식에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송덕수 총장직무대행, 교무위원 등 주요 내빈과 졸업생 및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의례, 찬송가 제창, 성경 봉독, 기도, 총장직무대행 말씀, 학위 수여, 축주, 교가 제창, 축도의 순서로 진행됐다. 학부 졸업생 최연소자는 만 21세이며 최고령자는 만 45세이다.

송덕수 총장직무대행은 졸업식사를 통해 “정든 이화를 뒤로하고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이화의 졸업생들을 축하한다”며 “이화에서 갈고닦은 학문적 지식과 지혜를 사회에서 마음껏 발휘해 꿈을 이뤄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대량화, 자동화, 정보화를 거쳐 우리는 ‘지능화’라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기계가 인간의 보조자를 넘어 경쟁자 역할을 하는 지능화된 사회는 현재의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융합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회로 진입하게 될 졸업생들에게 △매 순간 창의적 사고를 하도록 노력할 것 △어디서나 따뜻한 리더십을 보여줄 것 △쉼 없이 배움을 이어갈



것을 당부하며, “131년 동안 이화가 그려했듯 끊임없는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자신만의 길을 만들라”고 격려했다.

한편,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EGPP(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 장학생 10명을 포함해 가나, 말레이시아, 몽골,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이란, 인도, 중국,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캐나다, 타이완, 태국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 학생 총 113명(학사 31명, 석사 77명, 박사 3명, 통합 2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EGPP는 개발도상국 여성 인재를 선발해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해 교육하는 세계 여성 인재 육성 프로그램으로, 졸업생들은 우수한 성적을 바탕으로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모국으로 돌아가 모교에서 쌓은 교육 역량을 널리 발휘할 예정이다.

## 2017학년도 입학식 및 신입생 환영행사

모교는 2월 24일(금)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2017학년도 입학식을 갖고 3,410명의 신입생을 맞이했다. 입학식에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송덕수 총장직무대행, 김영주 총동창회장, 주요 보직자 등이 함께 자리하여 새내기 이화인의 입학을 축하했다.

송덕수 총장직무대행은 입학식사를 통해 “한 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이화가 이제는 20만 명이 넘는 동창을 배출한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 되었다”며 “최근에 큰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동안의 역사를 가능하게 했던 이화의 정신으로 모두가 힘을 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다른 도약의 계기로 삼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생활은 무한한 가능성 가지고 본격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한 전공과 진로를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때”라며 “신입생 여러분들이 또 어떤 모양으로 이화의 역사를 만들어 갈지 기대가 된다”고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송덕수 총장직무대행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가슴 뛰게 하는 일을 찾을 것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 △나누는 인재가 될 것 △이화의 모든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신입생 선서는 사범대학 초등교육과 윤수연 씨와 경영대학 문다나(Mun Dana) 씨가 맡았다. 윤수연 씨는 “꼭 가고 싶던 학교에 입학한 것뿐만 아니라 대표로 선서까지 하게 되어 더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또한 “초등교사를 꿈꾸고 있는데, 이화의 진·선·미 정신이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과 일맥 상통하는 것 같다”며 “이화에서 더 많이 배워 좋은

교사로 성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려인 부친을 둔 카자흐스탄 출신 문다나 씨는 “한국인의 혈통을 잊지 않고 한국에서 언어와 경영학을 공부하기 위해 이화에 진학하게 되었다”며 “졸업 후에는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교류에 기여하는 사업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입학식 직후 오전 11시부터 신입생을 환영하기 위한 이화사랑 프로그램 ‘Welcome to Ewha’가 같은 장소에서 이어졌다. KBS 아나운서 박은영(무용 05) 동창의 사회로 재학생 게스트들이 생생한 캠퍼스 라이프와 대학생활 노하우를 들려주었다. 또한 특별 게스트로 KBS 기자 김나나(사회 02) 동창이 깜짝 등장해 대학 생활, 성공적인 사회 진출 비결 등을 전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재학생 대표들은 “대학 생활 속에서 꿈을 찾아 여러분만의 주체적인 삶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 모교의 벗이 된 새내기들을 환영하는 인사를 전하고 행사를 마무리했다.



# 대학(원) 소식

대학(원) 순서로 게재

## 사회과학대학

회장\_\_한인영(사복 72)

### 12대 동창회장 선출

사회과학대 동창회는 2월 28일(화) 임시 임원회를 열고, 11대 사과대 동창회 활동을 돌아보고 회계 감사를 하였으며 12대 회장단에게 업무를 넘겨주었다. 3월 전체 임원회의에 앞서 가진 이날 모임에는 한인영 회장과 김미령(커미부 69) 전 회장, 이양준(정외 70) 고문, 김이경(문정 77) 감사가 참석하였다. 이양준 고문은 “사과대가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며 발전하기까지는 여러 선배님들의 수고와 사랑의 덕이 있었다”라고 말하며 새로 회장을 맡은 한 회장의 역량에 기대를 표했다. 김이경 감사는 11대 동창회 활동과 수입 지출 내역을

꼼꼼히 살펴본 후 알뜰하게 동창회 살림을 한 11대 회장단을 칭찬했다.

이 자리에서 김미령 전 회장은 지난해 여름부터 겪은 모교의 아픔으로 동창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며 “새로 시작하는 12대 동창회는 보다 밝은 비전을 가지고 도약하는 사과대 동창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숙고 끝에 회장직을 수락한 한인영 회장은 전임 회장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청하면서 “재미있는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대 동창회장 이·취임식은 3월 11일(토) 11시 30분 케세이호에서 열렸다. 사과대 동창회 회장은 2년 임기로 다음 13대 회장은 2019년 3월부터 사회학과가 맡을 차례이다.

## 경영대학

회장\_\_서지희(경영 85)

### 새해인사 나누며 2017년 첫 모임 가져

2월 27일(월) 저녁, 강남의 한 멋진 이탈리아 식당에서 새해 인사를 나누며 올해 첫 모임을 시작하였다. 이화를 사랑하는 동창들의 모임인 만큼 참석자 모두는 현재 모교의 상황을 무척 안타까워하며 서로 협력하고 잘 정리되어서 빠른 시일



3월 11일(토) 총동창회장 이·취임식 개최한 사과대 동창들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돋자고 하였다.

올해부터 경영대학 동창회는 경영학과 단일 학과로 이루어지게 되어 경영대학 동창회장과 경영학과 동창회장을 한 명이 겸임하기로 했다. 2016년 동창회 일정을 참고로 하여 올해 2017년 일정을 새로 만들었으며, 올해도 멋진 동창회를 위해 서로 도우며 격려하기로 하였다. 특히 재학생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더욱 힘쓰기로 다짐하면서 첫 모임을 훈훈하게 마쳤다.



신년모임에 참석한 간호대학 동창들



정기총회에 참석한 경영대학 동창들

## 간호대학

회장\_\_조혜숙(간호 76)

### 간호대학 신년모임과 LA 단합대회

새해 시작과 함께 1월 13일(금) 이화 간호대학 동창회 신년모임을 개최하였다. 3회(1961년 졸업)부터 52회(2010년 졸업)까지 동창 24명이 참석하여 간호대학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와 친목을 다지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간호대학 동창회는 1월에 LA에서 단합대회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였다. 참석한 동창들은 다음과 같다. 양정남(간호 60), 손명숙(간호 63), 박화자(간호 66), 박일선(간호 71), 김혜숙(간호 72), 신군애(간호 72), 조인서(간호 72), 김순배(간호 73), 홍정순(간호 73), 안혜숙(간호 74), 김용인(간호 75), 김정순(간호 75), 김화영(간호 75), 안영숙(간호 75), 양경분(간호 76), 한옥주(간호 76).

## 약학대학

회장\_\_박하영(약학 77)

### 신년하례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 개최

2016년 12월 2일(금) 오전 11시, 선정릉역에 위치한 수담 한정식에서 정기 임원회를 가졌다. 2회(1950년 졸업)부터 39회(1989년 졸업)까지 총 34명의 선후배가 모여 한 해를 정리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지난 10월에 가진 제53회 정기총회 결산보고 및 평가의 시간에는, 정기총회가 50주년 동창들의 축하회를 겸하고 있는데 앞으로 졸업 40주년·30주년·20주년·10주년 동창

들에게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어 2017년도 사업계획안을 보고하였으며, 총동창회 달력과 수첩을 서로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회장은 미리 마련한 선물로 동창들에 대한 애정을 보여 주었다.

2017년 1월 11일(수) 오전 11시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신년하례를 겸한 임원회를 가졌다. 이날은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의미로 원하는 동창은 한복을 입고 오도록 하였다.

특별위원회인 주홍장학회, 약연후원회, 병원약사장학회, 개국동문회 위원장들이 그동안의 경과 보고와 2017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서 문화부, 사업부, 선교부, 약사부, 자료관리부, 지역부 각 부장들이 2017년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동창들의 많은 협조와 참석을 부탁하였다.

특별 순서로 빌 더글라스의 〈Hymn〉, 아일랜드 민요 〈나는 대리석 궁전에 사는 꿈을 꾸었네〉, 노사연의 〈만남〉을 바순으로 연주하였고, 계속되는 앙코르에 화답하여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바순 연주와 합창으로 마무리하였다.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동창들은 오찬을 함께하며 훈훈한 덕담을 나누고, 교가 합창으로 모임을 마쳤다.

한편, 2017년 2월 15일(수) 오후 3시, 모교 ECC 지하 4층에 위치한 ECC 극장에서 ‘신입 동창환영



임원회 및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약대 동창들

회’를 가졌다. 동창회로서는 68회 새내기 동창들을 맞는 날이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총 57명의 새내기 동창들과 약대 학장, 부학장, 선배 동창 등 총 81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약사 국가고시 100% 합격이라는 소식을 듣고 모두 기뻐하였다. 새내기 동창들의 입회 선서, 답사, 입회비 증정 등의 순서가 있었고, 동창회를 소개하는 영상 자료를 준비하여 약대 동창회 일원이 됨을 일깨워 주었다.

2부 순서로 남성 4인조 색소폰 콰르텟 ‘S-With’와 함께하는 희망음악회를 열어 색소폰의 매력에 흠뻑 빠지는 시간을 가졌다.

3부 순서로 약학과 68회 창립총회를 갖고 회장, 부회장을 선출한 뒤, 다함께 교가를 3절까지 부르고 기념촬영을 끝으로 모임을 마쳤다.

### 주소가 변경된 동창은 연락 주십시오!

《이화동창》이 반송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된 분들은 총동창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총동창회 사무실 전화 : 02-3277-3386~7 E-mail : [ewhaalum@ewha.ac.kr](mailto:ewhaalum@ewha.ac.kr)

# 과(학부) 소식

과(학부) 순서로 게재

## 영어영문학과

회장\_\_김혜정(72)

### 장학증서 수여식과 신년하례식 가져

2016년 12월 1일(목)에 영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동창 선배들의 응원하는 마음을 재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2017년 2월 7일(화) 12시에 압구정 한일관에서 조정호(53)·김승숙(55) 교수, 유중근(67) 고문, 이정숙(77) 감사를 모시고 김혜정 회장을 포함한 12명의 임원단이 신년하례식을 하였다. 영학회 선후배 간의 친목 도모 및 활동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2017년 신규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1년에 2회에 걸쳐 역사문화 탐방을 기획하였고, 동아리 활동 등의 소그룹 활동을 지원하고, 자원



신년하례식에 참석한 영문과 동창들

봉사를 통한 나눔 행사에 대한 아이디어도 이 자리에서 공유하였다.

특히 이번 모임에는 이승아(91) 영문과 학과장과 류혜원(99) BK 연구원이 참석하여, BK21Plus 사업단에 대한 소개와, 선후배 교류를 통해 이어질 수 있는 국내 및 해외 인턴십의 필요와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역설하였다.

3월 14일(화)에는 역사문화 탐방 사전답사를 하였고, 4월 25일(화)에는 기간사와 임원이 함께 운현궁~북촌한옥마을 탐방을 기획하고 있다.

## 불어불문학과

회장\_\_마송민(75)

### 창립 60주년을 기리는 총회 준비

불문과 동창 모임 아미회는 지난 2016년 12월 21일(수) 성북동 이계영(78) 동창의 집에서 행복한 연말 파티를 가졌다. 이날 연말 모임에는 특별 초청 공연으로 윤선영(성악 15) 동창과 기타리스트 천상혁 씨의 협연이 있었다. 윤선영 동창은 <난 당신을 원해요(Je Te Veux)>를 노래하였고, 천상혁 씨는 <문 리버(Moon River)>를 연주하여 박수 갈채를 받았다.

2017년 2월 15일(수), 정유년 첫 모임은 한일관



이계영 동창 집에서 열린 불문과 연말파티

압구정점에서 오찬 모임으로 이루어졌다. 2017년은 불문과가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해서, 현 임원진과 차기 임원진을 주축으로 전체 간사진이 최선을 다하여 ‘불어불문학과 창립 60주년’을 기리는 4월 총회를 준비하고자 결의하였다.

## 독어독문학과

회장 \_\_ 이봉무(72)

###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송년모임

2016년 11월 24일(목)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



독일어권문화연구소가 개최한 콜로키움에 격려금을 전달한 독문과 동창회

에서 독문과 송년모임이 있었다. 참석 동창들은 민용자(67)·남재온(68) 동창의 하모니카 연주에 맞춰 에델바이스를 함께 부르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그동안 독문과 동창회를 이끌었던 이정화(74) 동창이 인문대학 동창회장을 맡게 되어 감사와 축하의 선물을 이 동창에게 전하였다. 2016년 2학기에 신설된 독일어권문화연구소가 12월 2일(금) 개소식 공식 행사로 콜로키움 ‘문화와 정체성–독일’을 개최하였다. 콜로키움에는 독문과 전·현직 교수 및 동창, 재학생들이 참석하였고, 동창회 임원단이 독문과 동창회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 사학과

회장 \_\_ 한혜련(75)

### 간사회에서 동창회 활성화 논의

2016년 12월 15일(목) 용수산에서 간사회를 열었다. 송년회를 겸해서 모인 이 자리에서는 한 해를 마감하며 간사회의 여러 활동들을 돌아보고 간사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7년 2월 23일(목) 용수산에서 열린 간사회에서는 새해 사업 계획을 점검하고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사학과 동창회 간사회는 1회부터 55회까지 각 기의 간사들로 구성되어 1월, 7월, 8월을 제외하고 매달 모임을 갖고 있다. 선후배가 함께 모이는 자리인 만큼 선배들의 지혜와 후배들의 열정이 어우러져 최상의 조합을 만들어 내는 조직이라는 자부심을 구성원 모두가 갖고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 작곡과

회장\_\_문성희(80)

### 고 김순애 교수 추모음악회

2016년 12월 4일(일) 3시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한국 최초의 여성 작곡가 김순애 교수(음악과 41년 졸업, 모교 음악대학 교수)의 추모음악회를, 신(新)음악회 주최, 작곡과 및 작곡과 동창회 주관으로 개최하였다.



김순애 교수 추모음악회를 주관한 작곡과 동창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조소과 동창들

정기총회에서는 2016년 회계 및 재무 보고와 감사 보고가 있었고, 조소과 동창회의 2016년 여러 행사를 프로젝터를 통해 살펴보는 훈훈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전임 회장들과 재정 이사들에게 선물을 증정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고 이화 조소과 동창회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2017년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동창회 주소록 정리 및 기간사 선출, 제9회 비전 이화 미술인전 전시, 창립 131주년 기념식 및 동창의 날 행사, 제34회 이화조각전, 이화인의 밤 행사 등이 논의되었다.

## 조소과

회장\_\_이선희(81)

### 동창회 운영위원회 및 정기총회 개최

2월 17일(목) 인사동 이모집에서 동창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가 열렸다.

정기총회에 앞서 14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2명의 이화조각회 회원 재가입 심사를 하였다. 또한 이선희 회장이 2017년도 동창회 및 조각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안건들을 제시하여, 그 주제로 활발히 토의를 하였다.

## 생활미술과

회장\_\_윤자윤(85)

### 제34회 비주얼메시지 회원전

시각디자인 전공 동창들의 그룹전인 제34회 비주얼메시지 회원전 'Visual Recipe'가 2016년 12월 13일(화)부터 2017년 1월 2일(월)까지 구하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회원전의 주제는 요리로, 세계 어디서나 일상 요리에 사용되는 '달걀'을 소재로 나만의 달걀 레시피와 함께 그래픽 작업을 선보



생활미술과 동창들의 그룹전

였다. 회원전에 참가한 동창들은 다음과 같다(가나다순).

김경주, 김도희(97), 김린, 김수진(94), 라지영, 안유진, 이영희(68), 임현수(99), 정승은(99), 정진숙(93), 홍수연.

### 장식미술과(패션)

회장 \_\_ 곽미지(87)

### 고 배천범 교수 1주기 추모행사

조형예술대학 패션디자인전공 명예교수를 지낸 고 배천범 교수 1주기를 추모하는 행사가 1월 17일(화)부터 21일(토)까지 조형예술관 A동 이



배천범 명예교수 추모전에 참석한 장식미술과 동창들

화아트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기리며 마련한 자리로, 추모예배와 배천범 교수 추모 전시, 제자 전시로 구성되었다. 추모 전시에는 고 배천범 교수의 생전 활동이 담긴 영상, 대표 작품, 연구 활동 자료들이 전시되었고, 스승을 추모하며 제작한 제자들의 작품 70여 점도 함께 전시되었다.

### 도예과

회장 \_\_ 최혜림(85)

### 성황리에 개최된 도림회 총회

2월 13일(월) 이화·삼성교육문화관에서 도림회 총회가 열렸다. 이날은 역대 도림회 총회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동창들이 모였다. 새로 바뀐 임원진들을 소개하며 2년 동안 수고한 전 회장과 임원진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또한 지난해 동창들의 각각의 성과를 나누고 앞으로 도예과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정현(생미 63)·김수정(생미 66)·유혜자(생미 67) 세 명의 명예교수를 모시고 43기 신입회원까지 함께하며 이대 도예과의 전 역사를 아우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도림회 총회에 참석한 도예과 동창들

## 융합보건학과

회장\_\_고효선(79)

### 퇴임하는 김명 교수에게 감사인사 전해

2월 20일(월) 청담동 ‘보다’ 중식당에서 6명의 융합보건학과 동창회 고문(이경옥·70, 최명숙·71, 조남옥·74, 임현숙·76, 고승덕·78, 고효선)들이 함께 모여 융합보건학과 졸업생으로서 최초로 모교에 부임하여 후학 양성과 과의 발전을 위해 30여 년의 긴 세월을 헌신한 김명(74) 교수의 퇴임과 새로운 시작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 자리에는 바쁜 중에도 김윤옥(70) 동창이 참석하여 그간의 희생과 공로를 치하하며 자리를 빛내 주었다. 융합보건학과 동창회의 올해 일정과 계획을 논의한 후 정겨운 사담과 덕담으로 즐겁고 훈훈한 분위기를 즐겼고, 다음을 기약하며 모임을 마무리했다.



김명 교수의 퇴임을 축하하며 모임을 가진 융합보건학과 동창회

## 유아교육과

회장\_\_유청옥(88)

### 신년하례 행사 및 정기총회 개최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동창회는 1월 11일(수) 이



신년하례 행사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 유아교육과 동창회

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신년하례 행사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현직 교수 및 동창회 전·현직임원 등 6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여 퇴직 은사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는 신년하례 행사와 함께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1부는 장은경(87) 선교부장의 기도로 시작하여 장태옥(87) 전 회장의 인사, 이정환(교육 55)·이은화(59)·이기숙(72) 은사의 덕담, 학과 및 부속기관장의 소식전달, 졸업 10·20·30·40주년 기념 동창 축하 및 신입 동창 환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화유치원 이전 계획 백지화 비상대책위원장 흥용희(78) 동창이 유치원 이전 계획이 무기한 잠정 보류로 결정되기까지의 경과를 보고하여 참석한 동창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2부 순서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13대 동창회의 사업 및 회계를 보고하여 통과되었고, 유청옥 동창을 14대 동창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이후 화기애애한 담소와 함께 식사를 마친 후, 소프라노 인성희(종음 82) 교수의 독창을 관람하는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유아교육과 동창회에서는 해마다 1월 11일 신년하례 행사를 마련하여 은사들께 새해인사를 드리

고, 선후배 동창 간의 사랑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  
를 마련하고 있다.

## 특수교육과

회장\_한은주(79)

### 신입 동창 환영회로 선후배 간 우의 다져

특수교육과 동창회는 1월 23일(월) 이삼봉홀에  
서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를 개최하였다.

1975년 졸업생부터 2017년 졸업생까지 약 70여  
명의 동창들이 모교에 모여 동기들과 선후배 간  
의 우의를 돋구히 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특수교육과 교수 이소현(83)  
동창이 자폐성장애 디자이너들이 일하는 사회적  
기업 오토스타에 대한 특강을 하여, 모교 동창들  
이 졸업 후에도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갖는 기회  
를 마련하였다.

한편 특수교육과 동창회에서는 후배들의 학업  
을 돋기 위하여 2016년 동창회비의 일부인 300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하여 특수교육과 학생 2명  
에게 각 150만 원씩 전달하였다. 특수교육과 동창  
회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창회 장학금

이외에 매년 연회비에서 장학금을 마련하여 경  
제적으로 어려운 후배들을 조금이나마 도울 계  
획이다.

## 식품영양학과

회장\_정조인(83)

### '식품영양학과 50주년 기념 동창 시설 기금' 전달

식품영양학과 동창회는 2016년 12월 8일(목) 모  
교 본관 부총장실에서 식품영양학과 50주년 기념  
동창 시설 기금 8,000만 원과 신축 기숙사 건립  
기금 2,000만 원을 모교 송덕수 총장직무대행에  
게 전달하였다. 220명이 넘는 식품영양학과 동창  
들은 2016년 2월 '식품영양학과 창립 50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총 2억 원의 기부금  
을 약정하고, 9월 28일(수)에 50주년 동창 장학금  
1억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이번에 50주년 동창 시설  
기금 1억 원을 전달하여, 총 2억 원을 식품영양학  
과의 발전을 위하여 모교에 전달하게 되었다.

이 전달식에는 이선혜(74) 동창, 최수주(75) 전  
회장, 정조인 회장과 모교의 박윤정(96) 식품영양  
학과 학과장, 서선희(97) 교수가 참석하였다.



1975년 졸업생부터 2017년 졸업생까지 한자리에 모인 특수교육과 동창들



모교의 발전을 위해 동창 시설 기금을 전달한 식품영양학과 동창회

# 지회 소식

가나다순으로 게재

## 남가주(LA) 지회

회장\_ 장경해(피아노 75)

### 남가주 녹미회 ‘녹미소품전’ 개최

2016년 10월 15일(토)부터 11월 13일(일)까지 남가주 녹미회에서 녹미소품전을 개최하였다. 성원과 격려 속에 성공리에 소품전을 마치게 되어 무척 감사하다. 총 60점의 전시 작품 중 20점을 판매하여 ‘한인 노숙자 기금’으로 이화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 참여 작가 회원들과 녹미 임원진 모두가 뿌듯한 마음이었다.

#### \*전시에 참여한 동창들

한순정(서양 59), 서강일(서양 61), 노진송(생미 63), 현군숙(서양 65), 김선혜(섬예 66), 성기순(섬예 69), 김현



녹미소품전을 성황리에 마친 남가주 녹미회 동창들

실(서양 70), 오명애(장미 74), 사베리아 리(조소 75), 이영옥(섬예 76), 최숙영(서양 76), 최용순(서양 77), 서정숙(생미 79), 원철경(생미 79), 김현종(동양 85), 민경진(섬예 85), 민은규(서양 89), 남궁경(서양 90), 채현주(동양 90), 전성희(섬예 91), 강순영(특별찬조) 등.

#### \*후원자

장계원(문정 76) 이화남가주동창회 이사장, 장경해 이화남가주동창회 회장, 박광순(기독 64) 이화 OC모임 회장, 노진송, 김경희(섬예 78), 성기순(작품 후원), 표양숙(조소 75, 작품 후원), 오리온 바디숍 데이비드 리(Charles Arnoldi 작품 기증).

#### \*녹미 임원진

회장: 서정숙, 총무: 김현종, 회계: 조혜진(장미 89), 발전기금위원: 최용순, 과대표: 채현주, IT: 전성희.

#### \*녹미 고문단과 전 회장단

문인순(생미 68), 성기순, 김숙(조소 71), 배미혜(섬예 73), 배금신(조소 71, 1대 회장), 오명애(2대 회장), 정보경(생미 80, 3대 회장).

## 뉴욕 지회

회장\_ 박영숙(경영 86)

### 박영숙 회장 집에서 치른 신년하례식

2월 18일(토), 드물게 화창한 날씨 속에 박영숙 회장의 집에 모여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여러 동



새해를 맞아 한자리에 모인 뉴욕 지회 동창들

창들이 모여 정담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음악을 나누었다.

이날은 10월 26일(목)부터 29일(일)까지 뉴욕에서 열릴 예정인 2017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관해 의논했다. 선뜻 총회에 힘을 보태겠다는 동창들이 많아 2017년 총회의 성공을 미리 점쳐볼 수 있는 아주 반가운 시간이 되었다.

## 대구 지회

회장 \_\_ 김명옥(서양 86)

### 대구 녹미회 11회 그룹전 안내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형대(미대) 동창들



대구에서 활동 중인 녹미회 동창들

(녹미회)이 11번째 그룹전을 개최한다. 4월 25일(화)부터 4월 30일(일)까지 대백프라자 갤러리에서 서양화, 조각, 민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회원들 특유의 필력과 색감, 표현 기법을 발휘한 작품을 통해 자연에 대한 따스한 시선을 전달할 것이다.

## 덴버 지회

회장 \_\_ 임은혁(약학 72)

### 가족 동반 모임으로 정유년 시작

2017년을 맞이한 덴버 지회는 1월 8일(일) 서울 바비큐 식당에서 동창과 가족 등 25명이 모여 신년맞이 모임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난 소식을 나누고 신년 계획을 세웠다. 또한 몸이 불편한 최영혜(사복 58) 동창을 위해 모임 때마다 운전을 하여 늘 함께 참석했던 최 동창의 남편 안홍식 장로의 갑작스러운 타계 소식에 모두 애도를 표했다.

송은주(식영 75) 동창이 정재연(영문 68) 동창에 이어 덴버에서 활약하는 콜로라도 한인 합창단을 이끌게 된 소식과 김정자(수학 66) 동창의 제10회 세계협력대상 수상 소식 등 반가운 소식도 있었다.

덴버 지회는 올해도 주제 세미나와 야유회 등 의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멜버른 지회

회장 \_\_ 박혜진(독문 97)

### 신년 첫 모임 개최

2월 28일(화) 김향림(영교 75) 동창 집에서 11명

의 동창들이 모여 신년 첫 모임을 가졌다. 김명희(가정 66) 동창과 김향림 동창의 남편도 함께했으며, 김명희 동창의 기도로 식사를 시작했다. 김향림 동창이 마련한 바비큐와 동창 회원 모두가 만들어 온 음식으로 푸짐한 뷔페 식사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12월과 1월 서로의 휴가 소식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막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박령(중문 03) 동창이 오랜만에 참석하여 반가웠고, 곧 연주회를 앞둔 오윤미(피아노 04) 동창을 격려하고 축하하였다.

김명희 동창이 고국에서나 볼 수 있는 귀한 썹부꾸미를 만들어 와서 후식으로 나눠 먹으며 오붓하고 화기애애한 식사 시간을 마무리하였다. 분기별 정기모임 및 매월 비정기 등산 모임의 날짜를 정한 후 다음 모임을 기대하며 헤어졌다.



신년 첫 모임에 참석한 멤버들 지회 동창들

## 밴쿠버 지회

회장 \_\_ 손귀순(문정 71)

### 설 명절을 기념해 모임 개최

2월 4일(토) 밴쿠버 브로드웨이의 서울관 로열



올해 팔순을 맞이한 밴쿠버 지회 동창들

에서 설 모임으로 총 34명이 참석하였다. 50년 만에 처음이라는 눈사태로 연기됐던 모임이라 더욱 반가웠다.

이 자리에서 금년에 팔순을 맞이한 4명 – 김난숙(약학 61)·김정숙(불문 61)·장춘실(교육 61)·정덕현(의학 63) – 동창을 모두 축하했다. 또한 맛있는 식사를 동창들에게 대접한 정덕현 동창과 여러 가지 후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한 임원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볼티모어 지회

회장 \_\_ 김정현(정외 59)

### 새롭게 회장단 구성하고 동창회 활성화 위해 고문단 선정하기로

볼티모어 지회는 1월 14일(토) 김정현 회장의 집에서 동창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새로운 회장단을 구성하고, 회장에 김정현 동창, 총무에 박은선(법학 82) 동창, 회계에 이승숙(불문 86) 동창을 임명하였다. 또한 동창회 활성화를 위하여 고문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총회에 이어서 바리톤 안영수 씨의 독창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회에서 새 회장단을 선출한 볼티모어 지회 동창들

렸던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참석 활동 보고와 재정 보고가 있었다. 식사 후에 윤경원(성악 85) 부회장이 새로 오픈한 Caffe Bene 커피숍에 모여 커피와 티를 나누며 즐겁고 화목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동창들은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5월에 있을 북텍사스 지회 총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였다.

## 북텍사스 지회

회장\_\_강정숙(심리 63)

### 정기모임에 새로 나온 동창 환영

2월 9일(목) 댸러스 강남스시 레스토랑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숙재(무용 85) 이사장의식전기도 후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새로 나온 최승혜(약학 69)·서은주(영교 89) 동창을 환영하였고, 서로 간단한 자기 소개의 시간을 가졌다.

강정숙 회장이 『믿음의 강:이화국제재단 40년사』와 이화 수첩을 전달해 주었고, 휴스턴에서 열



댈러스의 식당에서 정기모임을 가진 북텍사스 지회 동창들

## 세인트루이스 지회

회장\_\_정선주(성악 68)

### 다양한 동창 기금으로 모교에 정성을 보태

세인트루이스 지회는 모교의 ‘진선미’ 정신을 항상 생각하며 한 달에 한 번씩 ‘진선미 모임’으로 모여 이화 자매의 정을 쌓아가고 있다.

2016년 10월 14일(금) 중식당 ‘킹도’에서 제58차 정기모임을 가졌다. 모임에는 최경선(영문 61, 이사장)·한정자(교육 63)·이수자(가정 63, 회계)·송경자(약학 65)·정선주·남진우(간호 73)·양혜자(심리 74)·이명아(종음 90)·최혜영(생미 86)·박찬옥(대학원 91) 동창이 참석하였다. 남진우 동창의 시작 기도에 이어, 서기 보고(서기 최길자·화학 65) 동창의 고국 방문으로 회장이 대독)와 회계 보고가 있었다. 스리랑카로 선교 여행을 떠났던 최혜영 동창은 중동 지역 선교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다.

세인트루이스 지회는 친목을 주 목적으로 하지만, 모교와 모교 총동창회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에 10월 모임에서 동창들이 모은 1,000달러를 모교에 보내기로 결정하였고, 지회 차원은 물론 개인 동창 자격으로도 ‘선배라면’에 동참하기로



St. Louis Art Museum 앞에 모인 세인트루이스 지회 동창들

하였다. 또한 해외 동창기금 500달러(1년에 100달러씩 5년)가 끝나고 한 번 더 하기로 결정해서 두 번째 해외동창 기금(500달러)을 약정하였다.

세인트루이스 지회에서는 해마다 모교에 총동창회 연회비를 보내고 있으며(2016년에도 336달러를 보냄), 총동창회 선교부에도 해마다 100달러를 보내고 있다. 또한 그동안 대강당 의자(16개), ECC 기금(5,000달러), 파주 기금(1,000달러) 등 모교에 정성을 꾸준히 보태고 있다. 한편 2000년에 이화국제재단에 설립한 세인트루이스 지회 장학기금이 1만 4,300달러(2016년 10월 기준)가 넘게 되었다. 또한 지역사회 봉사로 한인회 청소년 장학기금, Gateway Korea Foundation에 현금하고 있다.

2017년 2월 11일(토) St. Louis Art Museum에서 남진우·선재숙(의대 72)·송경자·이수자·정선주·최경선·최혜영 동창이 프랑스 인상파 화가 Edgar Degas의 특별 전시회를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곳 세인트루이스에서 유명한 여류 건축가 남영희 씨의 설명을 곁들여서 감상하니 더욱 좋았다. 한국 전시관에서 만난 ‘고려 시대의 분청 도자기’를 감상한 것도 뜻깊었다.

## 싱가포르 지회

회장\_\_조혜숙(영문 89)

### 다채로운 볼거리가 알찼던 연말모임

싱가포르 지회는 2016년을 마무리하는 연말모임을 12월 1일(목) 저녁 7시에 센토사 골프 클럽에서 가졌다. 모교의 조속한 안정을 기원하는 동시에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지난 1년 동안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동창들 스스로를 격려하는 연중 제일 큰 행사에 걸맞는 즐거운 자리였다.

연말모임은 블랙&골드의 테마로 공연과 게임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알차게 구성됐으며, 몇 주에 걸친 준비 기간 동안 동창들은 웃고 떠들며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 직장인을 고려하여 낮과 밤으로 나누어 모임을 가져오던 동창들은 이날 모두 한자리에 모여 지난 1년 동안의 활동 사진을 감상하며 더 발전된 2017년을 기약했다.

한편 12월 7일(수)에는 동창 골프 모임의 연말골프회가 센토사 골프 클럽에서 열렸다. 크리스마스 색깔인 빨강과 녹색으로 차려입고 눈부시게 펼쳐진 녹색의 자연에서 샷을 날리는 이국적인



블랙과 골드로 성장한 싱가포르 지회 동창들

풍경은 여름 나라 싱가포르에 사는 동창들만이 즐길 수 있는 삶의 재미였다.

## 애틀랜타 지회

회장\_\_장명옥(영문 81)

### 2월 정기총회에 35명 동창 참석

1월 8일(일) 새해 첫 정기모임에 37명의 동창이 참석하였다. 정문자(의학 66) 동창의 개회 기도에 이어 장명옥 회장이 2017년 지회 활동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어 김아자(의학 63) 이사장의 이사회 보고가 있었다. 이사회는 이사장, 고문, 총무, 서기, 회계, 22명의 이사로 구성되는데 1년에 2번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골프부(회장 차희숙, 체육 77)와 합창단(단장 김정희, 약학 79)의 소개에 이어 오랜만에 나온 홍경자(교육 65)·김영하(융합보건 68) 동창, 새로 나온 김희(의학 69)·권영주(영문 70) 동창을 환영하고 1월에 생일인 송신흥(의학 54입)·조성숙(가정 64)·장석란(서양 68)·김경원(가관 81) 동창에게 ‘이화’ 로고가 들어간 예쁜 가방을 선물했다.

2월 12일(일) 열린 정기총회에는 모두 35명의



정기총회에 참석한 애틀랜타 지회 동창들

동창이 참석하였다. 2016년 서기록 낭독(서기 최인옥, 체육 87), 회계결산보고(회계 김태원, 피아노 86), 회계감사보고(감사 장석란)가 김순희(법학 66) 동창의 동의와 김정희 동창의 재청에 이어 회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또한 장명옥 회장의 2017년 예산보고가 있었으며 경조사비에 대한 일부 수정안을 참석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여 통과시켰다.

한편 남편의 장례식을 1월 16일(월) 치른 전원숙(국문 59) 동창을 위한 동창들의 위로와 안부인사를 부탁하였고, 화가로 활동 중인 정호문(불문 62) 동창이 자신의 웹사이트를 소개하였다.

새로 나온 장소영(기독 90) 동창을 환영하고, 2월이 생일인 김혜경(영문 65)·홍혜진(정외 93) 동창을 축하하였다. 모임 내내 즐거운 분위기 속에 대화를 나누고, 점심 식사 후 단체사진 촬영을 한 뒤에 폐회하였다.

## 워싱턴DC 지회

회장\_\_김성혜(융합보건 88)

### 세대 간의 화합의 장 이룬 2016 연말 파티

2016년 12월 9일(금) 버지니아 타이슨스 코너 메리어트 호텔에서 2016년 총회 및 연말 파티를 개최하였다.

110명이 넘는 동창과 가족이 참가한 이번 파티에서는 특히 젊은 동창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1939년 졸업 동창부터 2015년 졸업 동창까지 76년의 차이를 넘어 세대 간의 화합의 장으로 그 의미를 더하였다. 회계 및 활동 보고, 김성혜 회장의 연임 인준 후, 최유정(무용 96) 동창



연례 이사회에 참석한 워싱턴DC 동창들



새해 첫 동창회 모임을 가진 자카르타 지회 동창들

의 재치 넘치는 진행과 함께, 김복희(성악 49) 동창의 독창, 게임과 연주, 중창 등 다채로운 행사가 4시간 넘게 펼쳐졌다.

연초에 열린 연례 이사회에서는 박옥영(교육 61) 동창이 새 이사장으로 선출되었고, 이사회 회계로 김경아(영문 81) 동창이 임명되었다. 올해도 동창들의 친목과 화합, 이웃 사랑과 나눔 실천, 기금 모금을 통한 장학 사업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올해는 4명의 모교 재학생들과 2명의 미국 거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역사 학습 및 문화 체험의 기회가 제공되는 이화 국제하계대학 장학금 신청 접수를 4월 1일(토)까지 받았다.

올해 지회는 봉사활동 및 역사 특강, 피크닉을 통한 친목 도모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 자카르타 지회

회장\_\_이은수(동양 78)

### 반가운 얼굴 가득한 새해 첫 모임

3월 14일(화) Sushi Sei에서 10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여 새해 첫 모임을 가졌다. 특히 한경화(문정

85) 동창이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반가웠고, 새롭게 모임에 참석한 양진영(간호 01)·송민우(간호 02) 동창을 모두 환영했다. 오랜만에 동창회에 참석한 최강민(도예 89) 동창이 특별 찬조금을 내주었다.

## 청주 지회

회장\_\_홍지은(제약 83)

### ‘청주 이화 송년의 밤’ 행사 치러

2016년 12월 14일(수) 블랙&레드의 드레스 코드로 아름답게 차려입은 3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



이화청주 지회의 ‘청주 이화 송년의 밤’ 행사

한 가운데 ‘청주 이화 송년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치렀다.

음악 전공 동창들이 많은 수고를 해준 1부 순서인 음악회에서는 훌륭한 동창들의 연주와 노래를 감상할 수 있었으며, 2부 송년회는 여성부장관상 등을 수상한 2명의 동창을 축하하며 ‘한우물’ 상 등 상장을 수여하고, 풍성한 경품 추첨으로 활짝 웃는 시간이 되었다. 3부 촛불의 밤에서는 ‘이화’에 대한 단상들을 돌아가며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화의 정신을 진하고 강하게 느낀, 즐겁고 감동 있는 송년회였다.



연말파티에 모인 토론토 지회 동창들

## 토론토 지회

회장\_\_권용옥(영교 74)

### 연말총회에서 신임회장 선출

2016년 11월 20일(일) Presidente Banquet Hall에서 180명의 이화가족이 블랙&화이트를 주제로 함께 모여 연말 파티를 즐겼다.

연말총회가 순서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2017년도 신임회장도 선출하였다. 디너 후 화음 동호회와 가야금 동호회의 연주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며 푸짐한 상품들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밖에는 눈이 평평 내리는 줄도 모르고 마음 놓고 웃고 즐기며 한 해를 마무리한 캐나다의 겨울 밤이었다.

1월 21일(토) 새로 구성된 임원들이 모여 2017년도의 사업과 행사 계획들을 함께 논의하였다.

2월 21일(화)에는 예배 모임인 횃불회 모임이 있었으며, 2부 순서로 즐거운 윷놀이를 하였다.

## 파리 지회

회장\_\_홍성부(생미 84)

### 송년회 및 정기총회 개최

파리 지회는 2016년 12월 3일(토) 14구에 위치한 수라식당에서 연말 송년회를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연말 정기총회는 봄 야유회와 함께 파리 지회 동창 모임의 중요한 공식 연례행사 중 하나이다. 임원 6명을 포함, 총 37명의 동창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재불이화동창협회의 정관 개정과 관련한 투표를 실시하였다.

주 변경 사항은 정회원과 준회원의 구분, 회비 조정 등 동창 회원 자격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임



연말 송년회에 참석한 파리 지회 동창들

원단이 수개월에 걸쳐 수정, 보완한 정관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수정안의 통과를 회원들의 투표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파리 지회 기금 마련을 위해 임원단이 유기농 비누, 김치 등을 직접 제작, 판매하는 바자회를 준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 홍콩 지회

회장\_\_정도경(사복 81)

### 홍콩에서 전시회 갖는 모교 조형예술대학 교수진과 학부생 격려해

1월 12일(목) 임혜경(커미부 79) 동창의 초대로 아리랑 한식당에서 풍성하고 화기애애한 오찬 모임을 가졌다. 오찬 후에는 임 동창이 새로 오픈한 사무실을 방문하여 동창회에서 마련한 선물을 전달하고, 임 동창의 사업발전 계획을 듣고 축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3월 3일(금) 모교 조형예술대학 디자인학부 홍콩 전시회 오프닝에 정도경 회장과 이명희(무용 68)·전우리(디자인학부 07) 동창이 참석하여 디자인학부장 조영식 교수 등 담당 교수진과 디자인



임혜경 동창의 사무실을 찾은 홍콩 지회 동창들

학부 학생들을 격려하고 축하해 주었다.

## 휴스턴 지회

회장\_\_정미선(수교 85)

### 어르신과 함께 하는 떡국 잔치로 설맞이

휴스턴 지회는 1월 25일(수) 11시 휴스턴 한인 노인회관에서 150여 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20년 째 계속해 온 설맞이 떡국 잔치를 열었다. 이 행사에 24명의 동창들이 자원하여 참석해, 풍성한 음식과 여흥의 시간으로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월 23일(목) 정미선 회장의 집에서 ‘건강한 한 해 보내기’라는 주제로 12명의 동창이 모여 필라테스 운동을 1시간 하고, 건강식 곤드레밥을 먹었다. 이어서 부탄 및 난민 선교를 하는 김성숙(피아노 66) 동창의 선교 활동과 동영상을 보면서 영·육의 양식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다.

휴스턴 지회는 매달 첫 화요일은 건강걷기를 주제로 모이며, 셋째 화요일은 정기모임으로, 매 월 2회의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설을 맞이하여 어르신들께 떡국을 대접한 휴스턴 지회 동창들

### 김태련(심리 60) 동창

아이코리아 회장 김태련 동창이 2016년 12월 22일(목) 아이코리아 평생교육원 대극장에서 ‘2016 베스트버디스 코리아 후원음악회’를 개최했다. 201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7회째를 맞은 후원음악회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 학생, 학부모, 후원자들까지 4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를 치렀다.



김태련 동창

### 김경은(동양 66)·김효정(서양 77)·신미선(서양 85)·유은자(서양 85)·윤경(서양 86)·이경애(서양 86)·정두옥 동창

이화기독미술인회(회장 김경은)가 1월 14일(토)부터 2월 3일(금)까지 지구촌교회 수지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1월의 편지전’을 개최했다. 이화기독미술인회는 모교 출신 크리스천 작가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 최병화(체육 66) 동창

최병화 동창은 2016년 10월 6일(목)부터 12일(수)까지 성북동에 위치한 ‘성북동 작은 갤러리’에서 190여 개국을 배낭여행 하며 모은 티셔츠 전시회를 개최했다.



최병화 동창

### 윤시향(독문 68) 동창

윤시향 동창이 번역한 연극이자 오스트리아 작가

페터 투루니의 작품 <황혼>(채윤일 연출, 명계남, 김소희 출연)이 2016년 11월 11일(금)부터 12월 4일(일)까지 계럴라 극장에서 공연되었다.



윤시향 동창

### 신난식(성악 73)·이수연(성악 92) 동창 외 ‘올해의 이화인’

2014년 창단된 행복한 합창단(단장 신난식, 지휘 이수연)은 ‘올해의 이화인’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다양한 전공의 선후배들이 모여 동창회 행사 참여뿐 아니라 사회 봉사를 통해 따뜻한 이화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2016년 6월 모교 중강당에서의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12월 성탄축하 연주회, 2월 23일(목) 분당 서울대병원 연주 봉사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강옥자(커미부 74) 동창

2월 21일(화) 강옥자 동창이 (사) 한국여성연맹회장으로 취임하였다.



강옥자 동창

### 김명(융합보건 74)·이재경(사회 74)·장남수(식영 74)·주영주(교공 74)·구혜수(의학 75)·전선희(의학 76) 동창

오랜 시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교에서 교육과 연구에 헌신한 동창들이 2월 28일(화) 정년퇴직을 맞았다. 신산업융합대학 융합보건학과 교수

김명 동창은 1984년부터 33년간 모교에 재직하며 보건전문인 양성과 국민보건교육 건강증진 분야 발전에 기여했으며, 일반대학원 여성학과 교수 이재경 동창은 1992년부터 24년간 모교 여성학과에 재직하며 여성학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여성과 가족 분야에서 업적을 이루었다.

신산업융합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 장남수 동창은 1995년부터 모교 식품영양학과에 22여 년간 재직하며 미량영양소의 체내 역할과 작용기전에 대한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업적을 이루었고, 사범대학 교육공학과 교수 주영주 동창은 1981년부터 36년간 모교 사범대학 교육공학과에 재직하며 교육공학 전문가 양성에 매진했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구혜수 동창은 27년간 모교 의과대학 병리학과 및 부속병원 병리과에 재직하며 병리학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선희 동창은 1984년부터 33년간 모교 의과대학 의학과에 재직하며 임신성 고혈압 부문에 탁월한 업적을 이루었고, 미세침습수술 분야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 김인숙(무용 75) 동창

김인숙 동창이 1월 12일(목) 국민무용진흥협회 회장을 맡게 되었다. 김 동창은 (사)한국발레협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인숙 동창

### 오숙환(동양 75) 동창

모교 동양화과 교수로 재직 중인 오숙환 동창이 ‘빛과 시공간’이라는 제목으로 햅뷸트리니티 갤러리에서 2016년 12월 13일(화)부터 30일(금)까지 초대전을 열었다.



오숙환 동창

### 진정숙(작곡 75)·심옥식(작곡 82) 동창

2016년 12월 17일(토) KBS아트홀에서 열린 제16회 제주늘푸른음악회를 통해 작품을 발표했다.



진정숙 동창



심옥식 동창

### 고 문수영(법학 63) 동창(1938~2017)

낮은 자의 대모, 영광교회 명예목사 문수영 동창이 1월 27일(금) 지병으로 소천했다. 향년 79세. 문 동창은 1970년 5월 몇몇 신학생과 함께 영광복음 선교회를 창립했으며, 1980년에 선교회 부설교회를 설립하였다. 1993년에는 무의탁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영광의 집을 개원하였다. 평생 독신으로 살며 넝마주의, 재소자, 무의탁 노인을 돌봤던 문 동창은 모교인 이화여대 병원에 자신의 시신을 기증하며 마지막 나눔을 실천했다.



고 문수영 동창

### 유영숙(화학 77) 동창

환경부 장관을 지낸 유영숙 동창이 생화학분자생물학회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생화학분자생물학회는 현재 1만 3,00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국내 바이오 분야의 대표 학회이다.



유영숙 동창

### 김나영(김미옥, 철학 78) 동창

안동아리예술단 단장 김나영 동창이 안무와 연출을 맡은 춤극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이 2월 25일(토)부터 3월 26일(일) 까지 안동유교랜드 내 원형극장에서 매주 토, 일요일에 공연되었으며,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응봉홀에서는 4월 1일(토)부터 2일(일)까지 공연되었다. 이 공연은 안동시와 경상도의 후원을 받았다.



김나영 동창

### 이은수(동양 78) 동창

3월 16일(목)부터 21일(화)까지 ‘5인의 감성전’ 전시가 자카르타 한국문화원에서 열렸다. 이은수 동창은 현재 한인 미협에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이은수 동창

### 조은미(무용 78) 동창

조은미 동창이 예술감독으로 있는 현대무용단-탐이 4월 6일(목) 모교 삼성홀에서 ‘제22회 현대무용단-탐 레파토리 공연’으로 <보이지 않는>을 무대에 올렸다. 또한 조 동창은 신작 <#2017 Body, Space, Image>를 4월 8일(토) 모교 삼성홀에서 공연했다.



조은미 동창

함영림(피아노 80)·우숙영(피아노 87)·박수연(피아노 90)·이귀란(피아노 90)·박영희(피아노 96)·최민경(피아노 96)·이아람(피아노 01)·강소연(피아노 03)·김세연(피아노 04)·김윤지(피아노 04)·전영화(피아노 04)·장진영(피아노 06)·신지혜(피아노 07)·홍유리(피아노 08)·김선희(대학원 15)·박혜현(대학원 15) 동창

모교 교수 함영림 동창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모임인 예림회가 4월 4일(화)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에서 ‘예림회 피아노 듀오 시리즈V with 팬아시아 필하모니아’ 연주회를 가졌다. 이번 연주에서는 팬아시아 필하모니아와 함께 바흐의 <여러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을 들려주었다.



함영림 동창

### 홍영미(의학 80) 동창

의학과 교수 홍영미 동창이 2016년 11월 10일(목) 개최된 대한소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한국심장재단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홍 동창은 ‘가와사키 병에서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안과 소견으로 포도막염(Uveitis as an important ocular sign to help early diagnosis in Kawasaki disease)’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홍영미 동창

### 김은미(사회 81) 동창

모교 국제대학원장 김은미 동창이 이끄는 모교 국제개발협력연구원 및 이화의료원 글로벌소녀건강연구원 연구팀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하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Korea Global Health Strategy’를 주제로 한 연구과제 수행기

관으로 선정돼 2016년 11월부터 3년간 총 40만 달러(한화 약 4억 7,0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이로써 2013년에 이어 게이츠 재단의 연구비를 2회 연속 유치하게 되었다. 또한 김은미 동창은 1월 3일(화) UN 글로벌 지속가능개발보고서(GSDR) 공동 저자로 선정됐다. GSDR 보고서는 연구 분야, 지역, 성별을 고려해 선정된 세계의 전문가 저자 15명에 의해 4년마다 작성되며, 김 동창이 작성하는 보고서는 2019년 유엔고위급정치포럼(HLPF)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은미 동창



이남림 동창

조사방 동창

정재은 동창

이남림(작곡 82)·임경신(작곡 92)·조사방(작곡 96)·이의진(작곡 97)·정재은(작곡 98) 동창 2016년 12월 20일(화) 동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이남림·이의진 동창이 (사)한국여성작곡가회와 장애인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All Together’를 통해 작품 발표를 했다. 또한 2017년 1월 21일(토) 7시 USF Concert Hall에서 이남림·임경신·조사방·이의진·정재은 동

창이 University of South Florida 초청 (사)한국여성작곡가회 연주회 ‘Korean Woman’s Voices’를 통해 작품을 발표했다.

#### 전혜숙(영문 83)·김진희(국문 88)·정영진(영문 98) 동창

전혜숙 동창의 『포스트휴먼 시대의 미술』(아카넷), 김진희 동창의 편저 『동아시아 근대 지식과 번역의 지형』(소명출판), 정영진 동창의 『16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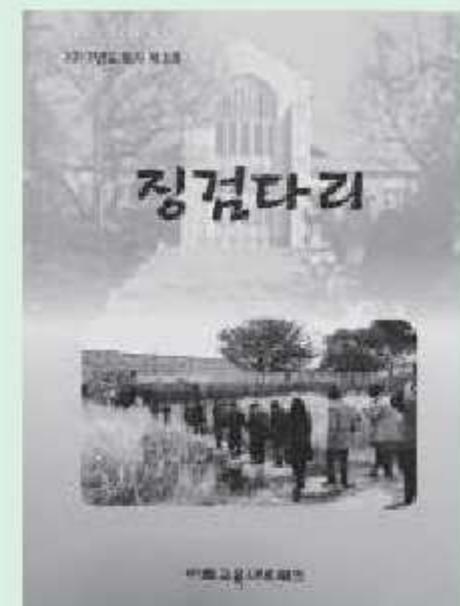
전혜숙 동창

김진희 동창

정영진 동창

### 이화교육네트워크, 《징검다리》 3호 발간

이화교육네트워크는 모교 교육학과의 학부·대학원·교육대학원 동창회의 연합체로, 회원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회원의 개인적·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 교육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교육문화 창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이화교육네트워크는 주로 한국 교육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교육 문화 조성, 간행물 발간, 회원들의 재능 발굴 및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1월 《징검다리》 3호를 발간하였다. 《징검다리》는 1년 단위로 발간되며 이화교육네트워크의 역사서와 같은 기능을 하는 회지이다.



『영국 출판산업과 여성』이 2016년 12월 29일(목)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2016년도 학술·연구지원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돼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한편 이화인문과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김진희 동창은 ‘제6회 김준오시학상’ 수상자로 선정돼 2016년 12월 10일(토) 부산일보 10층 소강당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김진희 동창은 평론집 『한국 근대시의 과제와 문학사의 주체들』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박은라(동양 84) 동창

2016년 12월 22일(목)부터 26(월)까지 코엑스 1층 A홀 73 제이원조형갤러리 부스전에 참가하였다.

#### 배수경(컴공 85) 동창

배수경 동창이 3월 9일(목)부터 22일(수)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에서 ‘감각의 정원에 초대된 의자들’ 전을 개최하였다. 이 전시는 예술의전당 레지던시 프로그램인 작가스튜디오 입주 작가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2명에게 열어 주는 ‘선정 작가 기획 초대전’이다.

#### 남연숙(도예 86) 동창

남연숙 동창이 2016년 10월 괌문화 예술청의 달을 기념하면서 CAHA art gallery, GPO(괌 프리미엄 아웃렛), 아가나 쇼핑센터에서 그룹전을 열었다. 또한 격년으로 주최하는 ‘크리에티브 핸드’ 아트전을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괌 대학 이슬라 갤러리에서 열었다. 2017년 3월 개인전 ‘Moving Colors, Series 2’를 Guam Council of the Arts and Humanities Agency (CAHA)에서 개최했으며, ‘Honor of Women’s

History Month’를 맞이하여, 괌 문화 예술위원회 주최로 낫산 인피니티 전시장에서 ‘제12회 괌 여성의 예술’ 그룹 전시회를 열었다.



윤경 동창

#### 윤경(서양 86) 동창

2016년 11월 1일(화)부터 12월 31일(토)까지 영등포구 아트월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가졌다.



이수정 동창

#### 이수정(조소 88) 동창

2016년 12월 15일(목)부터 23일(금)까지 장욱진 고택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김영지 동창

#### 김영지(서양 89) 동창

2016년 12월 7일(수)부터 20일(화)까지 Able Fine Art NY 갤러리에서 ‘For Everyday’를 주제로 초대개인전을 열었다.



원영은 동창

#### 원영은(조소 90) 동창

2016년 12월 9일(금)부터 23일(금)까지 강원발전연구원 1층 RIG갤러리에서 개인전 ‘밖으로 간 루스터’를 개최하였다.



강혜성 동창

#### 강혜성(섬예 93) 동창

2016년 11월 11일(금)부터 2017년 3월 5일(일)까지 경기도박물관에서 열린 ‘의문의 조선’ 전에 단령의 흥배를 복원한 자수 작

품을 출품하였다.

### 이인숙(도예 93) 동창

1월 6일(금)부터 2월 1일(수)까지 가로수길 갤러리 오에서 'Making It!' 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이인숙 동창은 생활과 예술에 있어, 감성과 감각의 통섭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 동창은 모교 디자인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 이향운(의학 93) 동창

모교 의학과 교수 이향운 동창의 연구팀이 유전적 이상으로 인해 말초신경병 및 근육마비가 진행되는 샤르코마리투스 병(CMT) 환자들의 유전자형별 뇌 미세 구조 변화를 나타낸 신경 망 지도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성균관의대 최병옥 교수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의 성과는 신경학 분야의 국제 학술지 《Annals of Neurology(IF9.8)》에 2016년 11월 18일(금) 게재됐다.



이향운 동창

### 송혜영(피아노 96) 동창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혜영 동창이 2016년 12월 28일(수) 미국 카네기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열었다. 이 연주회는 미국 Weatherford College에서 주최한 '피아니스트 송혜영 2016년 월드투어'의 피날레 연주회로 전석 매진되며 성황리에 끝마쳤다.



송혜영 동창

### 이문정(동양 00) 동창

아라리오 뮤지움 인 스페이스에서 1월 21일(토)에 신디 셔먼을 주제로 특강을 하였고, 2월 1일(수)

부터 22일(수)까지 매주 수요일 총 4회에 걸쳐 작품 감상 비평 수업(DISCOVERY RECORD 1기—Contemporary Art)을 하였다.



이문정 동창

### 황현숙(동양 00) 동창

'공·유기체 Empty Space organism' 전을 이화아트센터에서 2016년 12월 20일(화)부터 25(일)까지 개최하였다.



황현숙 동창

### 김순임(조소 02) 동창

1월 6일(화)부터 1월 22일(일)까지 인천시 주안동의 '대안공간 드'에서 개인전 '꿈의 기억' 전을 개최하였다. 인천아트플랫폼 7기 입주작가로 활동 중인 김순임 동창은 현재 건국대에서 강의하고 있다.



김순임 동창

### 박성희(성악 02) 동창

박성희 동창이 2월 14일(화)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소프라노 박성희의 발렌타인데이 콘서트'를 열었다. 베네딕트의 〈집시와 새〉, 리스트의 〈사랑의 꿈〉 등 다양한 사랑의 테마를 노래한 박 동창은 모교 성악과 초빙교수로 이탈리아와 러시아 등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박성희 동창

### 강소연(피아노 03) 동창

2016년 12월 15일(목)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음악비평가협회 제정 '제18회 오늘의 신인연주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상을 받았다.



강소연 동창

## 김경하(경영 05) 동창

김경하 동창이 한국국제조세협회가 주관하는 ‘제2회 국제조세학술상’ 시상식에서 YIN Award를 수상했다. YIN Award는 국제조세 분야의 발전을 이끌 만 40세 이하의 젊은 전문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 동창은 모교 법학과 박사과정 중이며, 경영학과 재학 당시 세무사(최연소 합격) 및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바 있다.



김경하 동창

## 김희진(컴공 05) 동창

2월 22일(목) 코엑스 B1홀 세미나룸에서 열린 ‘2017 스타트업 월드컵’ 한국 지역 예선전에서 120대 1의 경쟁을 뚫고 우승을 차지했다. 페녹스 벤처캐피탈(Fenox Venture Capital) 주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독일, 대만, 인도네시아 등 16개국을 대표하는 스타트업들이 상금 100만달러(약 11억 원)를 두고 겨루는 글로벌 스타트업 이벤트였다. 김 동창은 CEO로 재직 중인 IoT 스타트업 기업인 ‘유라이크코리아(uLikeKorea)’로 우승을 차지했다.



김희진 동창

## 김진희(심리 08) 동창

2016년 11월 25일(금) 여성가족부 주관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기념식’에서 모교가 ‘2016년 폭력 예방교육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모교 양성평등센터 연구원 김진희 동창이 여성가족부 선정 개인유공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 및 각급 학교(초·중·고등·대학교)에서 이뤄진 폭력 예방교육에 대하여 실시 및 관리에 힘써온 실무자 15명을 선정하여 개인유

공상을 선정하였으며, 김진희 동창은 우수상 14명 중 1명으로 선정됐다.

## 권민혜(전자 11) 동창

2016년 11월 19일(토) 중앙대학교에서 개최된 ‘2016년도 한국통신학회 추계 종합학술발표회’에서 권민혜 동창이 속한 모교 공과대 박형곤 교수팀이 ‘패킷 손실이 발생하는 채널환경에서 조직 네트워크 코딩의 디코딩시간 분석’에 관한 논문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권민혜 동창

## 진소영(약학 12) 동창

에코과학부 박중기 교수와 Elizabeth Kern 박사, 박사과정 진소영 동창이 전남대와 공동으로 ‘바다의 인삼’으로 불리는 돌기해삼(Apostichopus japonicus)의 유전체를 세계 최초로 해독했다. 이 연구 성과는 세계적 학술지 《기가사이언스(GigaScience)》 2017년 1월호에 게재되었다.



진소영 동창

## 김지선(대학원 13) 동창

2016년 12월 19일(월) 개최된 ‘2016 어린이재단 연구논문 지원사업’ 연구보고회 및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지선 동창의 연구팀은 ‘가정외 보호 퇴소 청소년의 원가족 관계 경험’을 주제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퇴소 청소년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부모와 관계를 지속하는 사례와 단절된 사례들을 나눠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공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지선 동창

### 김은혜(약학 15) 동창

2016년 11월 3일(목)부터 4일(금) 까지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열린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ICCST) 2016'에서 'Best Poster Award'를 수상했다. 약물설계, 전산화학, 바이오인포메틱스 등 컴퓨터를 이용한 과학기술 분야의 전 세계 연구자들이 참여한 본 심포지엄에서 김은혜 동창은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 개발을 위한 TRPV1 길항제 분자모델링 연구'로, 수상자 3명 중 1명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김은혜 동창

### 최혜빈(과교 15) 동창

2016년 10월 26일(수)부터 29일(금)까지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년 추계 지질과학연합학술대회'에서 우수발표상을 수상했다. 국내외 지질 및 지구환경분야의 연구자들이 최신 연구결과 및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참여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모교 석사과정 최혜빈 동창은 남한강과 북한강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풍화과정을 리튬동위원소를 사용하여 지역별로 풍화양상이 다름을 증명하였고, 한강 수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밝혀냈다.



최혜빈 동창

### 2017 특수교사 임용시험 주요 지역 수석 배출

모교는 2017학년도 특수교육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주요 지역의 수석과 차석을 다수 배출했다. 특히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서울 지역의 유아·초등아·중등특수 교육 수석을 휩쓰는 쾌거를 거뒀다.

서울 지역에서는 △유아특수교육 수석에 채유선(교대원 08) 동창과 차석에 이다은(특교 15) 동창 △초등특수교육 수석 박예슬(특교 17) 동창 △중등 특수교육 수석에 유태희(특교 14) 동창과 차석 이지영(특교 16) 동창이 영광을 차지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초등특수교육 수석 전영선(특교 15) 동창 △중등특수교육 수석 백재원(사회과 교육 16) 동창, 인천 지역은 △중등특수교육 수석 김건화(특교 16) 동창과 차석 이명희(특교 16) 동창이 영예를 안았다.



채유선 동창

이다은 동창

박예슬 동창



유태희 동창

이지영 동창

전영선 동창



백재원 동창

김건화 동창

이명희 동창

# 이화동창 회비를 납부해 주십시오

이화동창 여러분! 총동창회의 연회비, 평생회비 납부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회비는 1년에 한 번씩 납부하는 연회비와 평생 한 번 납부하는 평생회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연회비 대신 평생회비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동창들께서 보내 주신 회비는 총동창회의 장학사업, 회보 제작, 모교 기부금 등으로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회비 납부를 통해 이화 사랑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 ■ 평생회비(납부자는 연회비 면제)

30만 원 – 2017년 기준 만 60세 이상, 1979년 이전 졸업 동창

50만 원 – 2017년 기준 만 60세 미만, 1980년 이후 졸업 동창

## ■ 연회비(1년에 1번씩 납부)

3만 원

## ■ 납부 방법

지로 입금 – 《이화동창》에 동봉된 지로용지를 통해 납부

계좌 이체 – 신한은행 100-009-592614(예금주: 김영주 이대총동창회)

※송금시 성명, 학과, 졸업연도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이사를 하실 동창은 총동창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277-3386)



# 동창이 펴낸 새 책

졸업연도 순서로 게재

## 수다떨다 글쓰다 김현자(국문 66)·한인영(사복 72)·

김난숙(사회 74)·박혜영(약학 76)·이남숙(생명 77)

김현자·한인영·김난숙·박혜영·이남숙 지음 / 개미

● 문학평론가, 사회복지학자, 행정가, 약학자, 식물학자인 김현자·한인영·김난숙·박혜영·이남숙 동창은 모교에 재직하면서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알찬 업적을 보여준 이들이다. 이들이 바쁜 중에도 서로의 글을 함께 읽고 공감하며 한자리에 모여 수다 떨듯이 이 세상의 온갖 화두들을 공유하였다. 특히 「이화 사랑 채플 이야기」, 「장딴지 조련사 114 계단」, 「다시 찾아간 그 시절, 그때 우린 그랬었지」, 「이화연가」 등 동창이라면 공감할 젊은 날의 추억과 그리움도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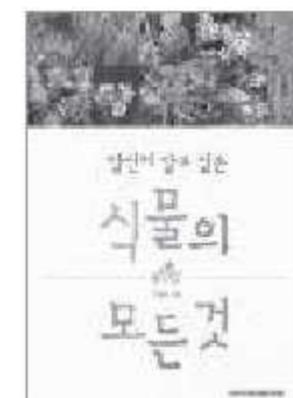


기독교 정신을 비판하였다. 저자 오정화 동창은 모교 영어영문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 당신이 알고 싶은 식물의 모든 것 이남숙(생명 77)

이남숙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식물에 대한 교양 지식을 누구든 부담 없이 쉽고 재미있게 얻을 수 있는 책을 이남숙 동창이 펴냈다. 식물에 대한 기초 생물학적 이론으로 시작해 문학, 음악, 그림, 건축 등 예술 속 식물, 신화와 전설 및 세계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등장하는 식물에 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져 있다. 이 동창은 모교 생명과학과와 대학원 에코과학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모교 자연과학대학 학장, 자연사박물관 관장을 역임했다.



## 19세기 영국 여성 작가와 기독교

오정화(영문 76)

오정화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19세기 영국은 복음주의와 부흥으로 인해 모든 사람의 삶과 사고방식에 기독교가 막대한 영향을 끼치던 시대였다. 이 책은 이러한 19세기 영국의 기독교와 여성 작가들의 다층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당시 영국의 가부장적 문학 풍토 속에서 어떻게 여성 작가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작품 활동을 하고 사회 변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는 연구서이다.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네 명의 여성 작가, 샬롯 브론те, 에밀리 브론те, 엘리자베스 개스켈, 조지 엘리엇의 첫 작품을 고찰하였다. 이들은 복음주의의 영향을 받아 남성의 지배권에 도전하고 가부장적으로 전유된

## 타오르던 암벽에서 배성희(생명 82)

배성희 지음 / 푸른향기

● 『서정시학』으로 등단한 배성희 동창의 두 번째 시집. 이 시집은 고통의 끝에서 '온밀한 생'을 지펴 그 힘으로 현실의 삶을 밀고 나가는 존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시집에 실린 시편들은 독립적이지만 긴밀하게 결부되어 서로를 비춰 주고 채워 준다. 배 동창은 구로구립 하늘도서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 사임당의 비밀 편지 신아연(철학 87)

신아연 지음 / 책과나무

● 수필가로 활동 중인 신아연 동창이 첫 소설 『사임당의 비밀 편지』를 출간했다. 현숙한 아내, 현명한 어머니의 대명사 신사임당. 그러나 그녀가 과연 그런 삶을 살

았을까? 속속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진 신 동창은 소설에서 역사와 시대가 들씌운 사임당의 고착된 이미지의 이면을 조명하여 '인간 사임당'의 민낯과 속마음을 자필 편지를 통해 고백하듯 그려냈다.



##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1, 2, 3

백소영(기독 91)

백소영 지음 / 꽃자리

- 모교 기독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백소영 동창이 신간을 발표했다. 지난 2014년부터 CBS TV <성경 사랑방>에서 '성경 속 사람 사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의한 64회분의 내용을 책에 담았다. 책은 『삶, 그 은총의 바다』와 『신앙, 그 순례의 여정』, 『역사, 그 빈들에 서서』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 동창은 모교 기독교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2003년 미국 보스턴 대에서 기독교 사회윤리로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모교에서 강의해 왔다.



## 상위 4%를 만드는 1등급 딜러트 강태은(경제 94)

강태은 지음 / 깊은나무

- 강태은 동창이 비만클리닉에서 딜러트 컨설팅을 해온 15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체계화된 이론을 책으로 펴냈다. 많은 사람들이 딜러트를 시도하지만 실패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식단과 실천법 등을 제시한다. 강 동창은 현재 프렌닥터 연세내과 부원장으로 비만클리닉을 담당하고 있다.



## 치유적 고전 서사의 발견: 고전 리딩 레시피

김수연(행정 95)

김수연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수연 동창은 문학 응용 분야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문학치료학의 관점에서 고전을 새롭게 읽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 책은 불안, 우울, 좌절 등 내면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타인



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현대인들의 심리적 결핍과 갈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우리 고전에서 찾고 있다. 김 동창은 현재 모교 국어국문학전공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문학치료학회 상임기획이사와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총괄총무이사를 맡고 있다.

##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유은정(의학 96)

유은정 지음 / 21세기북스

- 정신과 전문의로 자존감 심리치료센터를 운영 중인 유은정 동창이 사랑, 공부, 관계 그 모든 시작이 서툴고 어색한 사람들을 위한 심리 테라피 책을 펴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의 감정에만 지나치게 신경 쓰느라 자신의 감정을 챙기지 못한다고 지적한 유 동창은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타인에게 상처받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주체적인 삶을 만들어나가는 방법을 알려준다. 유 동창은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게 상처뿐이라면, 더는 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대신 상대에게 의존하고 집착하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스스로를 사랑하라고 조언한다.



## 앨리스 리턴즈 한혜원(국문 99)

한혜원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뉴미디어 콘텐츠에 나타난 여성 캐릭터 연구'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뉴미디어 콘텐츠에 나타난 여성 캐릭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그 재현 양상과 서사적 기능을 고찰한 연구서이다. 여성 캐릭터를 단독으로 전면에 내세워 최초로 대중적 성공을 거둔 게임 '툼레이더'의 주인공 '라라 크로프트'부터 시작하여 〈굿 와이프〉나 〈그레이 아나토미〉, 〈하우스 오브 카드〉 등 최근에 방영된 미드, 〈그래비티〉, 〈인터스텔라〉, 〈마션〉과 같은 영화나 인터랙티브 드라마, 웹 콘텐츠 등 다양한 장르와 매체의 스토리텔링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한혜원 동창은 모교 융합콘텐츠학과(구 디지털미디어학부) 부교수이자 학과 내 CCL(Creative Content Lab)의 운영자이다.



isoi

선영아

0.1%의 나쁜 성분도  
넣고 싶지 않을 만큼

사랑해

4년 연속  
에센스 부문

1위\*



유해성분에 반대합니다-isoi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받아 마땅한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을 위해  
천연유래 화장품 아이소이가 피부의 진실한 변화를 약속합니다.



국내 브랜드 최초  
미국 EWG Verified™ 획득



독일 알러지테스트  
Excellent 등급 획득



미국 프리미엄 유기농  
마켓 홀푸드 입점



isoi 독일연구소만의  
독보적인 블렌딩 노하우

아이소이 잡티세럼

\*2013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올리브영 매출액 및 매출수량 기준

푸치니고향 루까시립극장, 푸치니재단과 박물관에서 온 유품과 의상·소품이 함께하는  
글로리아오페라단 창단26주년기념 오페라의 막을 연다!

G. Puccini

# MANON LESCAUT

## 마농 레스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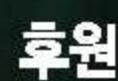
2017. 6. 9 | 금 | – 10 | 토 | PM7:30 11 | 일 | PM3:00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예술총감독 양수화 지휘 Marco Balderi 연출 Aldo Tarabella 기획감독 Cataldo Russo

출연 Daria Masiero, Maria Tomassi, Dario Di Vietri, 이형석, 박경준, 임희성, 이진수, 이준석, 민경환, 김세환, 오정율, 김경화, 우왕섭

연주 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메트오페라합창단 원드발레단

주최 |  (사)글로리아오페라단  루까시립극장  푸치니재단

협찬 |  하나금융그룹  KT  NH투자증권  SK telecom 후원 | KBS  한국방송 이탈리아문화원  
티켓 R석 27만원 S석 17만원 A석 10만원 B석 7만원 C석 5만원 D석 3만원 예매 SAC Ticket 580-1300 인터파크 1544-1555 문의 (사)글로리아오페라단 02-543-2351

# 최고의 성혼율 S노블



“Looking for spouse?”

## 참 한결같은 S노블

아무나 가입을 협력하지 않고 함부로 만남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당신께 100% 만족을 드리기 위해. 당신에게 꼭 맞는 만남을 찾고자 노력하는 S노블

만족의 크기가 다릅니다. 1%의 만남을 위한 100%의 약속, S노블

성혼시까지 무기한 · 무제한 결혼정보 서비스로 성혼을 책임집니다.

SINCE1999

[www.snoble.com](http://www.snoble.com)

이화여대 동문 및 자녀 분들을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02.3445.4777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01-7번지 패밀리빌딩 2F | 결혼증개업 신고번호 : 강남080045

대한민국 최초 상류층 결혼정보클럽  
 **S Noble**  
SINCE 1999